

청소년 핵심역량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I
수련관기반 핵심역량 개발 지도 매뉴얼 II

핵심역량 - 사회성

총괄책임자 :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 권일남(명지대학교 · 교수)

공동연구원 : 김태균(성산호대학원대 · 교수)

김정율(광진청소년수련관 ·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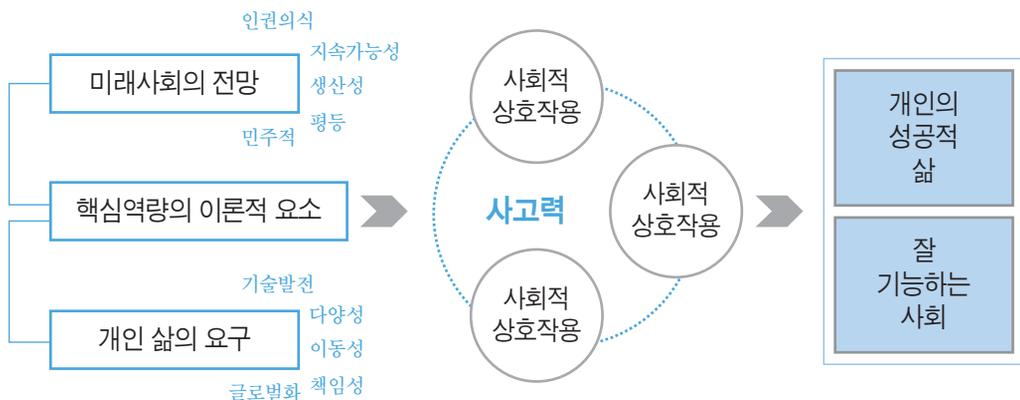
김지수(당동청소년문화의집 · 관장)

김영희(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차장)

1 소 개

1. 청소년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의 개요

- 이 매뉴얼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본원에서 수행한 <청소년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시범사업의 결과물이다.
- 청소년 핵심역량(Youth Key Competencies) 개념은 1997년부터 OECD 에서 시작한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의 개념적인 틀을 기반으로 한다. DeSeCo 프로젝트의 목적은 개인이 생애에 걸쳐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과 기술을 규명하고, 인적자원의 질적 표준과 국가학습목표를 제시하여 역량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 DeSeCo는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새 기술들(technology), 다양성(diversity)이 증가하는 사회, 그리고 전 세계의 지구촌화(globalization)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삶(mobility)에 적응해야 하며, 증가하는 개개인의 책임(responsibility)도 감당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기초로 개인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 '지적도구 활용(Use tools interactively)', '사회적 상호작용(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자율적 행동(Act autonomously)' 및 이 3가지 핵심역량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사고력'(thinking)을 제안하였다(OECD 2006).



출처: DeSeCo (2003).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2. 매뉴얼의 구성 체계

- 2010년, 본원에서는 앞서 정의한 청소년 핵심역량 개념을 전제로 실제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 매뉴얼을 포함 5권의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 시범사업은 크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규 중고등학교에서 교과과정이나 앞으로 본격 시행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은 관련된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사회성 및 지적도구활용/자율적행동/사고력 프로그램을 다룬 3권의 매뉴얼로 구성되었다. 반면 학교용 매뉴얼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규교과목(본 연구에서는 지리과목)을 핵심역량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를 제시했다.
- 본 시범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매뉴얼 작성에는 명지대학교, 중앙대학교, 조선대학교의 연구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매뉴얼의 구성과 분류, 참여기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핵심역량 개발 프로그램 매뉴얼의 구성

권	시설기반	구분	제목	수행기관
1	학교교과과정 연계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연계	조선대학교
2		교과목 연계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조선대학교
3		사회성 및 지적도구활용 중심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핵심역량-사회성	명지대학교
4	청소년수련시설 활동프로그램	자율적 행동 중심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핵심역량-자율적행동	명지대학교
5		사고력 중심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핵심역량-사고력	중앙대학교

핵심역량 - 사회성 프로그램

차 례 | CONTENTS

I. 프로그램 개관	5
1. 프로그램 개발 배경	6
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8
3. 프로그램의 개요	8
II. 프로그램 매뉴얼	15
1. 오리엔테이션과 친교의 시간	18
2.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1차_ 커뮤니케이션 게임	28
3.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2차_ 어르신에 대한 이해	38
4.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3차_ 글과 인연맺기(자서전 쓰는 방법)	48
5.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4차_ 세상과 마주하다(인생연대표/유서 체험)	54
6.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5차_ 어르신 만나기 100m 전(1)	66
7.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6차_ 어르신 만나기 100m전(2)	78
III. 어르신과의 만남과 활동지도	87
부록	95



I . 프로그램 개관

청소년수련관기반지도매뉴얼 II : 사회성 프로그램

1_ 프로그램 개발 배경

앞선 세대인 성인이 다음세대 청소년을 이해한다는 것은 영원한 착각일 수 있다. 착각의 원인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인들은 이미 그 시대를 지나 왔기 때문이다.

성인들은 다 안다고 생각한다. 이미 자신도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왔고 청년기를 지나왔고 '너 만한 때'를 지나 왔기에 '나중에 알게 될거야', '나도 너의 마음 다 이해해', '너 만한 때는 원래 그래'라고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있다. 또한 기성세대는 청소년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지금 그 시기에 그 청소년이 아닌 과거시기 자신이 청소년이던 때의 청소년과 오버랩하여 생각하고 이를 청소년에 대한 자기만의 '상'으로 만들어 비교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땀 안 그렸는데', '요즘 애들은 통...!',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돌이켜 냉정하게 생각하면 '나도 그때 더했으면 했지 덜하지는 않았었다'라고 자인하여야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착시현상은 성인중심주의¹⁾를 만든다. 즉 청소년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행동을 장려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되거나 행동의 주체가 될 청소년 자신의 의견을 고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성인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이상할 것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이 생기게 된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아직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가정에서 이미 부모에 의해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하고 성인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 하에 일방적으로 학교에 가야하며 어른들의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수행되는 체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대부분 개인적 자유와 재량은 미래를 위해 유보되어야 하며, 성인들은 이러한 것이 그들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 인식하고 당연시 한다.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성인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취사선택하거나 개조하여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다반사다.

그럼에도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성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장에 있어서 부모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성인들과의 교류는 인성과 사회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청소년과 기성세대 성인들과의 소통은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증진케 하며 또한 실제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삶의 시간적 과정 속에 각 세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와 소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현대사회에서 노인세대의 경우 청소년과의 소통은 거의 불가능 할 것처럼 보인다.

1) 성인중심주의_김정주(2007), 청소년참여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개발」, 인간과 복지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노인세대의 경우 살아온 삶의 환경이 지금의 청소년들과는 너무도 큰 차이를 가짐으로 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소통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청소년 역시 그들의 삶 속에 비친 성인의 모습은 먼저 청소년기를 지나간 경제적 여유를 기반으로 사회적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통제하는 앞선 세대일 뿐 그들의 사고와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자기들의 삶에 본보기로 하기에는 너무 먼 상대일 뿐이다.

한편 노인세대가 가지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은 철없고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무엇인가 말을 전하고 싶고 그것이 앞선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 대한 훈육과 전수로써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과 노인세대가 만나서 소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실제로 그러한 예조차 부족하다. 청소년들 또한 노인세대에 대한 무관심이나 편견으로 가정에서 조차 할아버지와 만나고 소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노인세대가 가지는 사고와 삶의 경험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세대 간 포용성을 높이며 성장과정에 매우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또한 노인세대 역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바쁜 장년세대 보다 중요하고 효과적인 청소년의 사회적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다.

2_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핵가족 제도가 일반화되고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노인 소외 문제, 노인 복지 문제, 청소년의 비행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들은 경제적·정서적 측면에서 가족, 지역사회라는 울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가족과 지역 사회의 보살핌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며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보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대공감! 청춘이야기」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인과 청소년들에게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감, 존재감과 자신감을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대 간의 소통의 장(場)을 마련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3_ 프로그램의 개요

가. 목표

- 실제적인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자발적 청소년동아리를 육성한다.
- 청소년과 노년층의 어우러짐을 통해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도모한다.
- 청소년과 노인 간에 '자서전'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한 개인의 의미 있는 사건과 발달적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자아통합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 노인세대 및 기성세대가 가지는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불식시킨다.

나. 대상 선정기준

본 프로그램의 경우 노인과의 소통이라는 점에서 듣고, 쓰고, 말하는 기본적인 역량과 자질이 어느 정도 숙련된 청소년들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등학생 이상은 되어야 한다. 한편 상호작용과 소통을 프로그램의 중심구성 요소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별 활동을 통한 접근방식을 계획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학교에서 학업부담, 생활시간유형 등을 고려한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6인1조에 의한 조별활동을 통하여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1) 대상 선정 기준

- 관내 고등학생 중 평소 글쓰기에 관심 있는 청소년
- 어르신과 세대 공감을 원하는 청소년

2) 대상 _ 고등학생 30명 (※ 중학교 3학년 이상 가능)

- 6명이 한 모둠을 이루어 팀 프로젝트를 수행

다. 홍보방법

참가자의 모집은 학교단위로 국어과 교사를 통하여 추천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활동이 글쓰기라는 개인적 관심도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 더욱 자발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자원봉사 활동 거리가 부족한 학교현장에서의 욕구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학교에 요청 시 학교별 6인 1조를 편성하여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이는 같은 학교에서 생활시간이 동일한 학생들끼리 모였을 때 활동이 유리 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적인 신청이나 학교에서 조별 신청의 경우에도 참가자들의 의욕고취를 위하여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심사하여 선발한다고 공고한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활동이 차후 대학진학에서 수시입학이나 입학사정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신의 포트폴리오 자료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지원자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분	활용매체	세부 내용
참가자 모집 및 사업 활동 홍보	학교 공문, 지역정보신문, 회관/유관기관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참가자 모집■ 지역정보신문, 소식지 활용■ 사회복지관, 유스내비 등 온라인 홍보

라. 전체 프로그램 구성과 흐름

구분	과정	세부 내용
기본활동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모집 ■ 지도교사, 대학생 자원봉사 멘토 확보
	사전 교육	사전교육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총 7회기(회당 2시간) 진행으로 토론/강의식 모두 활동으로 수업 진행
	활동	인터뷰 작업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한 자서전 내용 발췌
	평가	활동 점검을 통한 진행 작업 수정 및 보완
추후활동		이후 봉사단 활동 계속

마. 단위 프로그램 구성내용

구분	프로그램	추진내용	역량요소
사전 교육	1회 오리엔테이션 (팀워크훈련)	프로그램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진행과정 소개 ■ 참여 대상자 소개/친목 다지기 	관계형성 대인간 접촉 소속감, 만족감
	2회 소통의 이해	Communication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별 과제수행 ■ 정보전달 훈련 ■ 과정토론 	문제인식해결 적극적 경청 사람신뢰
	3회 노인의 이해	고령화시대 노년층 이슈 공유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생각, 고정관념 깨뜨리기 ■ 노인에 대한 나만의 새로운 정의 내리기 	소통과 이해 다양한 가치수용 시민의식 대인이해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강화형 프로그램	4회	글과 마주하기	자서전 쓰는 방법1 ■ 자서전 쓰기의 중요성 ■ 글쓰기 방법과 글쓰기 순서 자서전 쓰는 방법2 ■ 연대기, 인생 곡선 그래프 그리기 ■ 미리 써보는 내 생애 일대기	기초역량 읽기, 듣기, 쓰기 ■ 창조적사고 ■ 유연성
	5회	세상과 마주하기	청소년! 인생을 미리 만나! ■ 자신이 쓴 생애 일대기를 바탕으로 상황극을 꾸며 재연하기 ■ 아름다운 마무리, 유서쓰기 죽음/혹은 노년의 생애 마무리를 미리 경험해 봄으로써 어르신의 삶을 존중하고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함을 느껴보기	창조적사고 유연성 행복추구
	6회 7회	어르신 만나기 100m 전	인터뷰 연습 ■ 질문지 만들기, 인터뷰 사전 모의 테스트 ■ 마인드맵, 인터뷰활동계획서 작성	대인관계 소통과이해 (대화능력) ■ 듣기 말하기
활동전개	어르신만나기 (2시간)		프로그램 소개 ■ 프로젝트 진행과정 소개 ■ 참여 대상자 소개/친목 다지기	관계지향성 ■ 대인이해 ■ 관계형성능력
	공식 인터뷰 (2시간)		팀별 어르신과 만남 ■ 어르신 이야기 듣기	적극적 경청
이후 2개월간 팀별로 개별 약속에 의하여 어르신과의 만남과 소통의 시간				
결과물제작	집필회의		집필방향의 아이디어 공유 ■ 어르신 일대기 그래프 작성 ■ 글쓰기 배분	
	편집회의		제본방향 정하기 ■ 사진자료수록	
	제본 배포		통합제본 ■ 배부처 확인 ■ 개별제본 부수 확인(어르신의 의견 반영 - 어르신 추가비용부담)	

참가자 모집 양식

「청소년 핵심역량증진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대공감! 靑春 이야기 참가 신청서

어르신 자서전 집필 프로젝트 봉사단

팀 명		학교(소속)	
성명(대표자)		연락처(대표자)	
팀 소개			
지원동기 및 각오			
특기사항	※ 성실성, 적극성, 리더십, 친화력이나 정보 수집/문서작성·편집/사진·동영상 촬영/포토샵/일러스트 등 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마음껏 기재해 주세요!		

참가자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소속)	연락처
		고등학교 학년 반	

※ 대표자를 포함하여 6명 학생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세요

추천인	담당교사		소속	
	연락처		부서/직위	
추천사유				

이와같이 「세대공감! 靑春 이야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 청소년수련관장 귀하

문의) 청소년사업팀 ○○○(youth@mail)
Tel. Fax.



II. 프로그램 매뉴얼

청소년수련관기반지도매뉴얼 II : 사회성 프로그램

II _ 프로그램 매뉴얼

1. 오리엔테이션과 친교의 시간 (120분)

2.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1차 (120분)

_ 커뮤니케이션 게임

3.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2차 (120분)

_ 어르신에 대한 이해

4.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3차 (120분)

_ 글과 인연맺기(자서전 쓰는 방법)

5.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4차 (120분)

_ 세상과 마주하다(인생연대표/유서 체험)

6.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5차 (120분)

_ 어르신 만나기 100m 전(1) '어르신 인터뷰 방법'

7.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6차 (120분)

_ 어르신 만나기 100m전(2)

'어르신과의 만남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오리엔테이션과 친교의 시간

오리엔테이션과 친교의 시간

활동명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활동장소	강당
담당자	청소년지도사	활동시간	2시간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 청소년들은 본 프로그램의 목적 및 방향성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 참가 청소년들은 본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참가 청소년들은 관계형성을 위한 모둠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설명이 되지 않도록 참가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한다. ■ 짧은 시간이지만 모둠별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단계	주요활동내용	시간	준비물
도입	1) 오리엔테이션 세팅 준비 점검 2) 참가 청소년 출석 확인	10"	
전개	3)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소개 ■ 프로그램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자서전 프로젝트 (청춘 이야기) 도입 배경 - 목적 및 방향성 소개 ■ 모둠 활동1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누어진 모둠별로 원 형태로 둘러앉아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나눈다. ② 각 모둠별 대표자를 정하고, 대표자는 각 구성원들과 함께 모둠 명을 짓는다. 지은 모둠명에 대한 이유를 정하고, 각 모둠별로 구호를 만든다. ③ 각 모둠별로 나누어 준 전지와 필기구를 가지고, 지원동기, 활동, 각오, 역할분담 등 모둠원과의 협의를 통해 각 모둠의 상징성을 잘 담아낸다. ④ 발표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 모둠 활동2 (아이스 브레이킹 - 인간 계산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각 모둠별로 메모지에 숫자를 적어(숫자카드)가슴에 1장씩 붙인다. ② 진행자가 요구하는 숫자를 각 모둠 전원이 협력하여 30초 안에 빠르게 계산을 해낸다. ex) "8사람이 10을 만드세요!" 하면 (5, ×, 4, ÷, 2, =, 1, 0) ③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게 계산한 모둠이 승리한다. 	90"	명찰, 현수막, OT PPT, 빔프로젝터, 노트북, 스피커, 마이크, 전지, 싸인펜, 크레파스, 숫자카드, 카메라
마무리	4) 마무리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응답 시간 - 참가자 전원 단체 사진 촬영 - 다음 프로그램 안내 후,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20"	

→ 활동목표

- 참가자들의 어색함을 풀고 친밀감을 형성하여 앞으로의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돕는다.
- 활동의 전 과정을 소개하고 주의사항을 전달하며 활동을 통하여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하여 능동적인 참여가 유도되도록 한다.

→ 활동개요

활동 일정소개, 자기소개, 모둠편성 확인, 자원봉사의 의미 설명, 활동의 의미 설명 등과 함께 참가자들의 친밀감과 모둠별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레크리에이션 팀워크-게임 등을 실시한다.

→ 준비사항

- 1) 참가자의 학년, 교급, 성별 등을 고려하여 미리 6인 1모듬의 편성을 하여둔다.
- 2) 모듬 편성은 활동의 원활 함을 위하여 같은 학교 단위로 우선하며 이후 같은 학년 단위로 묶는다.
이는 이후 활동이 모듬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사 일정이 서로 같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 3) 청소년자원봉사자 교육용 동영상,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소개하는 PPT 등

→ 활동의 전개

1) 활동소개 및 의식행사

- 활동소개 PPT, 자원봉사 교육 동영상 등을 상영하고 함께 할 담당 청소년지도자 및 수련관의 다른 지도자들을 소개한다.
- 담당 지도자 외에도 시설 내의 다른 지도자를 아는 것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수련관을 찾아 오게 만들며, 이때 반갑게 아는 얼굴이 있다는 점은 자발적인 활동과 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

2) 참가자 소개

참가자는 한명씩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한다.

3) 모듈 활동 1

나누어진 모듈별로 원 형태로 둘러앉아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나눈다.

참가자 전원이 이름으로 하는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고 이름을 외울 수 있게 한다.
우선 한사람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다음사람은 앞에 사람 이름과 자기 이름을 알린다. 또 그 다음 사람은 처음 사람의 이름부터 출발하여 그 옆 사람 그리고 자기 이름을 소개한다. 이러한 식으로 누적해가며 이름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름을 외우게 될 뿐 아니라 재미있게 모두를 소개하는 게임이 된다.

-모둠 이름 정하고 알리기

각 모둠별 대표자를 정하고, 대표자는 각 구성원들과 함께 모둠 명을 짓는다. 지은 모둠 이름에 대한 이유를 정하고, 각 모둠별로 구호를 만든다.

각 모둠별로 나누어 준 전지와 필기도구를 가지고, 자신이 속한 모둠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둠의 상징성을 그림을 통해 표현한다. 발표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4) 모둠활동2 (레크레이션)

친밀감 및 협동심을 이끄는 레크리에이션 게임을 진행한다.

우선 모둠단위 내부게임으로 모둠별로 모두가 잘 아는 게임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007 뺑", "3, 6, 9 게임" 과 같이 대부분 잘 알려진 게임으로 모둠내 팀원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둠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팀워크-게임으로 모둠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게임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간다. 이 또한 새롭고 어려운 게임보다는 잘 알려진 게임을 통해 쉽게 접근한다.

팀워크 게임 예)

- **인간계산기** ① 각 모둠별로 메모지에 숫자를 적어(숫자카드)가슴에 1장씩 붙인다.
② 진행자가 요구하는 숫자를 각 모둠 전원이 협력하여 30초 안에 빠르게 계산을 해낸다.
ex) "8사람이 10을 만드세요!" 하면(5, ×, 4, ÷, 2, =, 1, 0)
③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게 계산한 모둠이 승리한다.
- **이구동성 게임** 사자성어를 팀원들이 한자씩 나누어 동시에 외치고 다른 팀들이 맞추는 게임
- **말 전달하기** 처음 사람에게 단어를 보여주고 이를 행동으로 다음사람에게 계속하여 전달하고 마지막 사람이 무슨 단어인지 맞추는 게임

팀워크 게임은 일반 레크리에이션 게임 중 5-6명 단위 모둠 대항전 형태의 게임을 의미하며 어떠한 형태의 게임을 하던 모둠간의 경쟁심이 최대한 유발도록 하며 이러한 모둠간의 경쟁심은 모둠 내의 결속력을 다지는데 매우 유리하다.

활동 Point

이 시간은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자원봉사의 의미 활동방향, 일정 등을 소개하고 개인의 일정과 각오를 다지는 시간들이다. 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며 자신의 시간을 장시간 할애하고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 까지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 단순히 학교나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며 자발적인 참가임을 다시 일깨우며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접하는 마음을 너무 장난스럽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사와 소개의 시간은 약간 형식적인 듯 진행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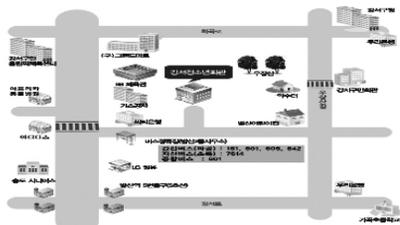
한편 처음 만나 친구들과의 친근감을 형성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의 경우 전문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를 초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확실하게 즐거운 시간으로 친밀감을 높이지 못하고 어설픈 진행될 경우 오히려 참가 청소년들의 관계를 어정쩡하게 하고 진행되는 지도자와 기관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즉 참가자나 진행자 모두에게 첫 시간에 주어진 인상이 전체 프로그램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간임으로 엄숙하게 각오를 다지는 것과 즐겁게 친밀감을 형성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오리엔테이션 순서지

■ 강서청소년회관은...?
 강서청소년회관은 강서구의 지역사회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 문화복지 공간으로 1993년 5월 22일 개관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육성 단체인 흥사단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 흥사단...?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단체입니다. 일제 치하에서는 나라를 되찾기 위한 민족의 실력양성에 힘썼고, 해방 후에는 민족부흥에 이바지할 인재양성과 민주사회의 건설을 위한 시민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참되고 친화적이며 윤택있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련활동과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강서청소년회관 찾아오시는 길



- 가스공사 서용지사(가게앞, 동촌5단지) 정류장 (공평 방향 / 88체육관 다음 정류장)
 - 지하철 5호선 방사역 하차(5분 출구), 88체육관 방향 200m
 ☎ 문의) 3664-2456-8

2010 청소년참여핵심역량프로그램 시범 사업

어르신 자서전 집필 프로젝트 봉사단

세대공감!
청춘 이야기

ORIENTATION

강서청소년회관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어르신 자서전 집필 프로젝트 봉사단
세대공감! 청춘 이야기 오리엔테이션**

1. 개회식 부장 김경미
2. 인사말 관장 김정철
3. 강서청소년회관 소개 부장 김경미
4. 『세대공감! 청춘 이야기』 소개 관장 김정철
 - 세부 추진 일정 공지 부장 김경미
 - 참가자 소개 및 모듬 편성
 - 모듬활동1) 친목다지기(메이케이션) 권혜진
 - 모듬활동2) 우리 모듬은...?
5. 질의응답 Q&A
6. 모듬별 / 단계 사진 촬영 다같이
7. 정리 및 마무리 다같이

강서청소년회관
www.gs-youth.or.kr

■ 활동 세부 일정

구분	일자	일정	프로그램
사	1회	8/5(목)	오리엔테이션
	2회 / 3회	8/16(월)	프로그램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1. 팀워크 훈련 2. 역할극 게임
	4회	8/17(화)	3. 노인의 이해
	5회 / 6회	8/18(수)	4. 글과 인연맺기 - 자서전 쓰는 방법1 5. 글과 하나되기 - 자서전 쓰는 방법2
	7회	8/19(목)	6. 세상과 마주하기 - 청소년 인생을 미리 만나다(역할극 시연) - 웰다잉(well-dying) 체험(유서쓰기)
전	8회	8/20(금)	7. 어르신 만나기 1m 전 - 인터뷰에 관한 모든 것!
	9회	9/11(토)	어르신 만나기(관계형성 프로그램)
	10회 - 15회	9/13(월) - 12/18(토)	공식 인터뷰(총 6회) - 요즘 별 어르신과 경기적인 만남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야기 유도 ※ 공개모임 - 10/9(토) / 11/13(토) - 활동 상황 중간점검, 인터뷰 장소 제공
결과물 제작	16회	12/21(화)	집필회의 - 아이디어 공유, 글쓰기 배분 및 글 작성
	17회	2011년 1/4(화)	편집회의 - 계보방향 정하기, 역할분담
	18회	1/5(수)	모듬별 정기 편집회의 진행(총 4회) - 사진자료수출, 링크 최종 마감
	21회	2/1(화)	※ 공개모임 - 2011/1/19(수) - 편집회의 중간점검, 회의 장소 제공
	22회	2011년 2/24(목)	자서전 전달식 및 활동 수료식
	상기 일정 및 프로그램 내용은 진행 상 변동 될 수도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2010 청소년생애핵심역량프로그램 시범 사업

어르신 자서전 집필 프로젝트 봉사단

세대공감!
청춘 이야기
ORIENTATION



강서청소년회관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Contents

1. 강서청소년회관은...?
2. 프로그램 소개
3. 추진일정
4. 모둠편성
5. 모둠활동 - 친목다지기
6. 우리 모듬은...?
7. 질의응답 Q&A




어르신 자서전 집필 프로젝트

세대공감! **청춘 이야기**

세대공감! **청춘 이야기**

자서전 사전적 정의!
1. 자신의 생애에 대해 스스로 쓴 전기(傳記),
2. 남에게 구술하여 쓰게 한 전기(傳記)

자서전
自叙傳
Autobiography



세대공감! **청춘 이야기**

어르신 사전적 정의!
1.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2. 노인, 혹은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

어르신
老人
An oldfaged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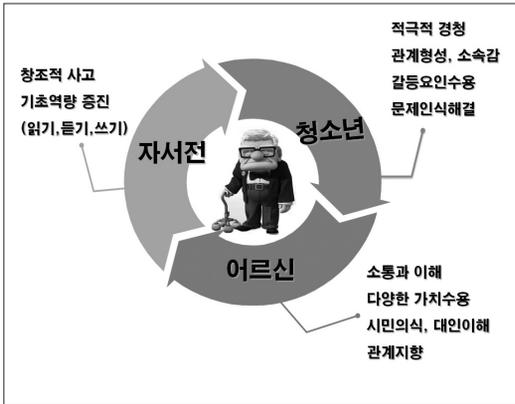


세대공감! **청춘 이야기**

청소년 사전적 정의!
1. 어른과 아이의 중간시기
2. [청소년기본법]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
3. 신체적 변화와 사춘기를 겪는 시기

청소년
靑少年
Youth





목표

청소년과 노년층의 어우러짐을 통해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도모한다.

'자서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한 개인의 의미있는 사건과 발달적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자아통합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구분	회차	일정	프로그램
사 교 육	1회	8/5(목)	오리엔테이션
	2회 ~ 3회	8/16(월)	프로그램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1. 팀워크 훈련 2. 역할극 게임
	4회	8/17(화)	3. 노인의 이해
	5회 ~ 6회	8/18(수)	4. 글과 인연맺기 - 자서전 쓰는 방법1 5. 글과 하나되기 - 자서전 쓰는 방법2
	7회	8/19(목)	6. 세상과 마주하기 - 청소년 인생을 미리 만나다!(역할극 시연) - 웰다잉(well-dying) 체험!(유서쓰기)
	8회	8/20(금)	7. 어르신 만나기 1m 전 - 인터뷰에 관한 모든 것!

구분	회차	일정	프로그램
전 개	9회	9/11(토)	어르신 만나기(관계형성 프로그램)
	10회 ~ 15회	9/13(월) ~ 12/18(토)	공식 인터뷰(총 6회) - 모듬 별 어르신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야기 유도 ※ 공개모임 - 10/9(토) / 11/13(토) - 활동 상황 중간점검, 인터뷰 장소 제공
	16회	12/21(화)	집필회의 - 아이디어 공유, 글쓰기 배분 및 글 작성
결 과 물 제 작	17회	2011년 1/4(화)	편집회의 - 제본방향 정하기, 역할분담
	18회 ~ 21회	1/5(수) ~ 2/1(화)	모듬 별 정기 편집회의 진행(총 4회) - 사진자료수록, 원고 최종 마감 ※ 공개모임 - 2011/1/19(수) - 편집회의 중간점검, 회의 장소 제공
	22회	2011년 2/24(목)	자서전 전달식 및 활동 수료식

상기 일정 및 프로그램 내용은 진행 상 변동 될 수도 있습니다.

고 등 부	1	2
	The First	Olleh청춘
	진민서 김민지 안영민 김선영 임세미 이민지	류중웅 이종민 윤선우 이주연 오슬기 이승희
중 년 부	3	4
	HS BLUE	무조건+어.집.프
	강창우 양창일 이주연 김혜미 이예지 이지현	왕혜원 김소윤 임선아 장정화 강민지 전나라
	5	6
	Arsin Friend	갯개미취
	장지연 방준영 조성희 권수연 장선호 김양희	김유진 김민지 정가는 전해린 홍정희 황유지
	7	
	응헤야! 업고놀자	
	박기인 전이수 홍서우 장여진 류다영 조주영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커뮤니케이션 게임

→ 활동목표

-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한다.
- 모둠활동에서의 팀워크를 실증적으로 느끼고 증진케 한다.
-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으로서 사회적 협력 및 갈등관리 범주역량을 증진케 한다.

→ 활동개요

참여자들을 6명 1모듬으로 구분하고 모듬원 각 개인에게 한 장의 그림에서 찢어진 6장의 서로 연관된 그림을 보여준 뒤 이를 모듬원들과 토론을 통하여 원그림을 복원해 내는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언어라는 소통의 도구를 활용하며 그 내용을 서로가 정확히 이해하여야 해결되는 게임의 요소를 통하여 배운 바를 토론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참가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소통의 중요성을 배우며 모듬활동 속에서 갈등관리와 사회적 협력의 역량을 증진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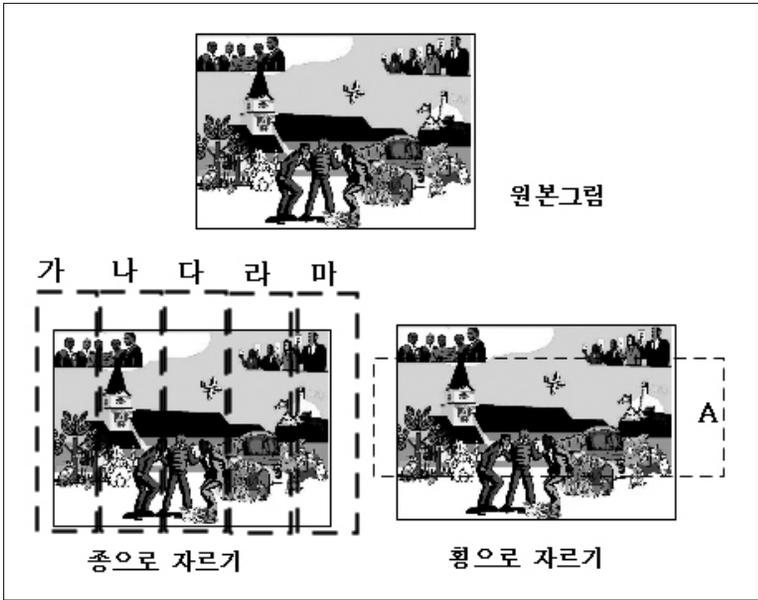
→ 준비사항

- ①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들이 등장하는 같은 사진 또는 그림을 3장 준비한다.
- ② 준비된 3장의 그림 중 2장은 <그림 1-1>과 같이 종으로 5조각, 횡으로 1조각을 잘라 준비한다.
- ③ 활동장소는 그림 <그림 1-2>과 같이 모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6구역에 별도의 구획을 지정하여 놓는다.
- ④ 장소가 충분히 넓고 수련관의 강의실과 같은 장소가 충분하다면 각 모듬별로 서로 간섭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며 각 강의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 ⑤ 참가자 각 모듬 숫자만 큼의 전지를 준비하고 개인당 1개의 필기구를 준비하여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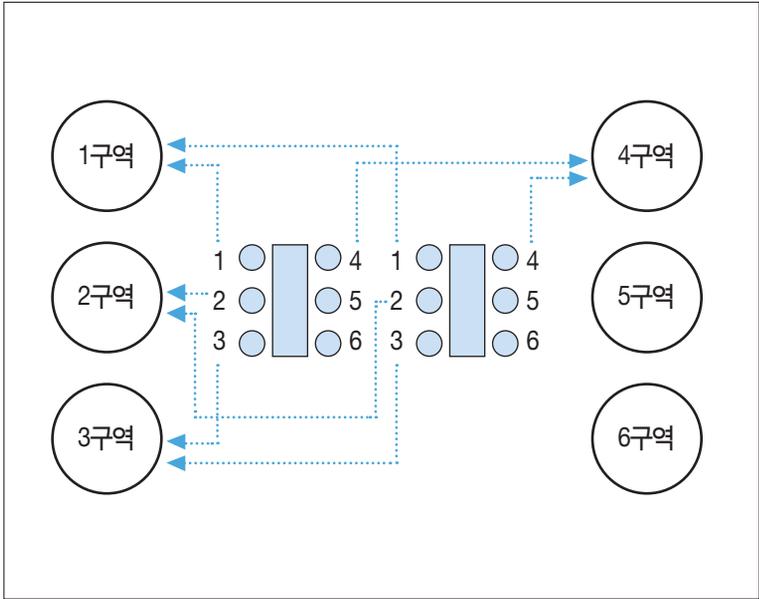
수련관의 강의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전체가 강당에 모여서 진행하며 5개의 강의실 벽에 5등분된 그림의 조각 두고 횡으로 자른 1조각은 지도자가 가지고 있다. 게임이 시작되면 각 강의실은 그림에 대한 정보획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지며, 각 방으로 가서 그림을 보고 강당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나 게임의 진행은 모두가 모여 있는 강당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모둠별 토론 활동은 강당 내에 모둠별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언어라는 도구만을 사용하라는 게임의 규칙이 지켜지는 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만약에 모둠별 토론에 서로 간섭을 받아 강의실을 활용해야 할 경우 각 강의실에 지도자를 배치하여 게임의 규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준비사항



<그림 1-1> 그림준비 하기



<그림 1-2> 활동장소 준비

→ 활동전개

도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중요성 설명하기 (10분)

- ① 사람들 간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소통을 잘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는 몸짓, 언어, 글, 그림 같은 것들이 있음을 알려준다.
- ② 옆 사람에게 말 전하기와 같은 간단한 게임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에게 활동에서의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한다.
- ③ 각 모듈별 경쟁심이 일어나도록 하는 팀 게임 등을 통하여 모듈간의 활동에 있어서의 경쟁심과 능동적 활동을 유도한다.

커뮤니케이션 훈련 (상황 설명하기, 20분)

- ① 각 모듈 별로 2명의 대표자를 선정한다.
- ② 한 명은 다른 참가자가 보이지 않도록 눈을 감는다.
- ③ 또 다른 한명은 자신이 원하는 포즈를 취하도록 한다.
- ④ 나머지 참가자들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눈을 감고 있는 친구에게 포즈를 취한 상황을 하나씩 설명한다.
- ⑤ 눈을 감은 친구는 지령에 따라 포즈를 취하도록 한다.
- ⑥ 눈을 뜨고 자신의 동작을 확인한다.

커뮤니케이션 게임 (그림 맞추기, 40분)

- ① 각 모듈별로 소속원 개인에게 1-6까지 번호를 부여하게 한다.
- ② 활동장에 마련된 <그림 1-2>의 개별구역으로 각 모듈 1번은 1구역으로 각 모듈 2번은 2구역으로 하는 식으로 여섯 구역에 각 모듈의 번호가 부여된 개인이 모이도록 한다.

- ③ 이렇게 하면 1 구역에는 각 모둠의 1번이 모이고 6구역에는 각 모둠의 6번이 모여지게 된다.
- ④ 각 구역에 모인 각 모둠의 참가자들에게 미리 준비하여둔 종으로 잘린 5조각과 횡으로 잘린 1조각의 그림 중 무작위로 하나의 조각을 10분간 보여준다.
- ⑤ 예를 들어 1구역에 모인 모둠원들에게 <그림 1-1>에서의 '마' 그림을 2구역에 모인 모둠원들에게는 '라', 3구역은 '가' 4구역은 '다' 5구역은 '나'를 보여 주며 마지막으로 6 구역에는 그림 '시'를 보여준다.
- ⑥ 이때는 참가들에게 그림이 잘려진 그림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지 않은 상태이며, 다만 그림을 10분간 자세히 관찰하고 돌아와 모둠원들에게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만을 강조한다.
- ⑦ 10분이 지나면 각 모둠원들을 모둠별로 다시 모이게 하고 자신들이 보고 온 그림을 모둠원들에게 말로써 설명하게 한다.
- ⑧ 이때 설명은 단순히 말로만 하고 시간은 30분 동안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각자가 보고 온 서로 다른 그림들이 사실은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이를 파악해 내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한다.
- ⑨ 참가자들이 자신이 본 그림을 설명하는 동안 각 모둠의 참가자 6번은 자신이 본 그림이 다른 참가자들이 본 그림과 서로 연결하는 키워드가 됨을 눈치채게 되고 자연스럽게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따라서 각 모둠의 6번은 그 모둠의 장이 되도록 미리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 ⑩ 30분이 지나면 토론을 멈추게 하고 준비한 전지와 필기구를 나누어 주며 본 그림들이 하나의 그림에서 잘려진 조각이었음을 알려주고 전지에 그 하나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는지 다시 그려내도록 한다.

활동 Point

이 시간의 진행은 하나의 팀워크-게임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각 모듈별로 경쟁심을 유발케 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원활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도입과정에서부터 가벼운 소통을 소재로 하는 팀워크-게임을 진행하며 재미를 북돋우며 진행하여야 한다.

도입을 위한 팀워크-게임 예) 동작 알아내기 게임

- ① A 모듈의 장을 앞으로 불러 세우고, 다른 B 모듈의 장은 눈을 가리고 그 앞에 서게 한다.
- ② 이 두 사람을 파티션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한다.
- ③ A 모듈의 장은 자유롭게 포즈를 취하고, B 모듈장은 A 모듈장을 손으로 더듬어 취한 포즈를 알아내어 자신의 B 모듈원들에게 말로써 소리질러 전달한다.
- ④ B 모듈원은 모듈장이 소리로 전달하는 말만 듣고 포즈를 취해 A 모듈장과 같은 포즈를 취하도록 한다.
- ⑤ A, B 가 역할을 바꾸어 누가 가장 근접하게 포즈를 맞추었는지로 경쟁한다.

말로만 전달하는 내용을 듣고 그대로 포즈를 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우스꽝스러운 포즈가 되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이 된다. 이러한 게임은 서로 경쟁하며 재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라는 도구가 의사를 전달하는데 유용하지만 그리 정확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 활동 마무리와 검토

- ① 모든 게임을 마치고 각 모둠이 재현해낸 그림을 평가 한다.
- ② 모둠별로 자신들이 재현한 그림을 들어 보이며 인물이나 상황을 설명하게 하고 원본그림과 대조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때에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다만 그림의 등장인물이나 상황들이 정확히 묘사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승부를 가르게 한다.
- ③ 평가를 마치고 모둠들은 다시 모여 앉게 하여 잠시 눈을 감고 지금까지의 과정들 - 특히 서로 설명하고, 이해하여, 그림으로 다시 표현하는 과정들을 떠올려 보게 한다.
- ④ 다시 20분정도의 시간을 주고 자신들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언어사용이 오류를 범하게 하였으며 누구의 설명이 가장 이해하기 쉬웠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같은 사항들을 토론하게 한다.
- ⑤ 참가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협력, 소통, 갈등의 조정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량들에 대한 이해와 자연스러운 체득이 가능하게 된다.

활동 Point 2

본 프로그램에서 마무리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조각 그림들을 각자 보고 돌아와 전달하는 과정에 어느 시점에서 그 그림들이 서로 연관이 있는 그림이라는 것을 눈치 챘는지, 누가 어떠한 말로 정보 전달을 한 것이 오류를 범하게 되었는지 등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단초를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각그림의 순서가 잘못될 경우 매우 이상한 그림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A 그림을 본 사람이 매우 중요한데 그 사람의 언어사용의 문제와 모둠 내에서 자신감 없이 소극적이었을 경우도 있고, 다른 조각을 보고 온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주장을 하여 전체 팀워크의 오류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모둠원들이 그 원인들을 이야기 하며 어느 한사람을 비난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면 프로그램은 역효과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검토를 통한 과정을 회상하는 일에 지도자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게 된다.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2차

어르신에 대한 이해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2차 - 어르신에 대한 이해

활동명	프로그램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② - 어르신의 이해 -	활동장소	실내 강의실
담당자	노인복지 전문 강사, 청소년지도사	활동시간	2시간
활동 목표	<p>I. 청소년들은 특강을 통해 고령화 시대 노년층에 대한 이슈 공유 및 사회적 책임에 이해할 수 있다.</p> <p>II. 청소년들은 특강을 통해 어르신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다.</p> <p>III. 청소년들은 특강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자신만의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다.</p>		
유의 사항	<p>■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p>		
단계	주요활동내용	시간	준비물
	<p>1)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이번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한다.</p> <p>2) 강연자 소개 후 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p>	10"	
전개	<p>3) 강연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에 대한 개념 정의 사전적 정의를 비롯해 평소 참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개념을 질문을 통해 들어본다. ■ 노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은 정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한다? - 노인은 UCC를 모른다? - 노인은 컴퓨터를 모른다? - 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노인과 의사소통하기 노인과 만남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숙지한다. ■ 노인종합복지관 노인 활동사례 참가 청소년들은 노인 UCC 봉사단의 다양한 활동 사례 영상을 통해 노인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갖는다. ■ 새로운 패러다임! 노인에 대한 재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은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 노인은 UCC 전문가다! - 노인은 정보화 사회의 전도사다! - 노인은 지역사회의 리더이다! 	100"	<p>조각그림, 마이크, 전지, 싸인펜, 크레파스, 필기구, 카메라, 명찰</p>
마무리	<p>4) 평가 및 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 청소년들은 강연에 대한 활동 소감을 서로 나누며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 다음 프로그램 안내 후,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10"	

→ 활동목표

- 참가 청소년들은 특강을 통해 고령화 시대 노년층에 대한 이슈 공유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참가 청소년들은 특강을 통해 어르신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다.
- 참가 청소년들은 특강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자신만의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다.

→ 활동개요

핵가족화의 정착에 따라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란 쉽지 않다. 세대 간의 격차는 점차 멀어지고, 이것은 곧 이질감까지 생기게 한다.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현재, 청소년들에게 노인 문제를 이해시키고, 이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준비사항

노트북, 빔 프로젝터,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 명찰, 필기구

→ 활동전개

도입

- 가) 지도자는 평소 참가 청소년들에게 평소 생각하는 노인의 개념에 대해 질문을 통해 들어본다.
- 나) 노인에 대한 사회적 잘못된 편견에 대해 열거하며, 참가 청소년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노인은 정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한다?
정보에 둔하며, 컴퓨터를 모른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의존적이다?
지저분하고 고리타분하다?

전개

- 가) 지도자는 참가 청소년들에게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이해시키며 젊은 세대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공유하도록 한다.
- 나)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의 이해를 통해 젊은 세대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숙지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노인의 욕구는 기억되기를 바란다.
환영받고 싶어 한다.
관심받고 싶어 하며, 존경받고 싶어 한다.
편안하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

다) 노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익힌다.

귀 기울여 잘 듣는다(경청)
비언어적 대화의 중요성을 기억한다.
긍정화법으로 시작한다.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단정적인 화법은 금물이다.
대면 시 미소와 인사로 시작한다.
EYE-CONTACT을 통해 신뢰감을 형성한다.

라) 참가 청소년들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노인 UCC 봉사단의 다양한 활동 사례 영상을 통해 노인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갖는다.

→ 활동 마무리와 검토

가) 지도자는 노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참가 청소년들과 함께 노인에 대한 재 정의를 내린다.

노인은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UCC 전문가다!

정보화 사회의 전도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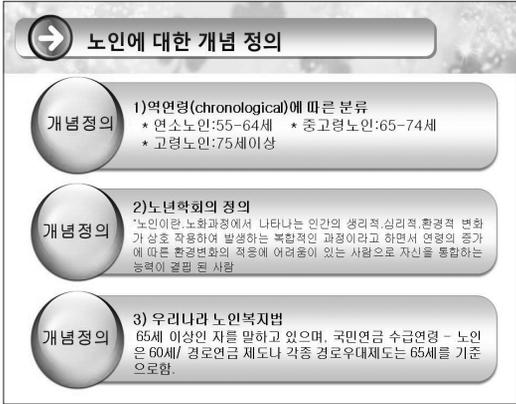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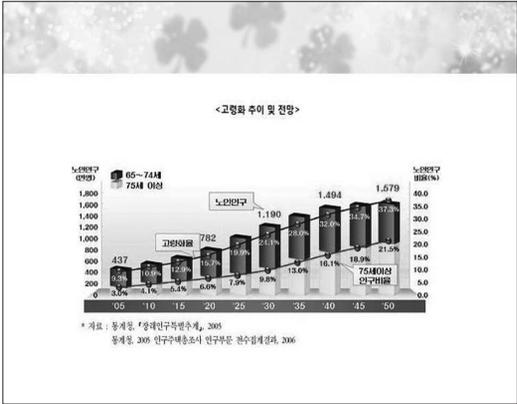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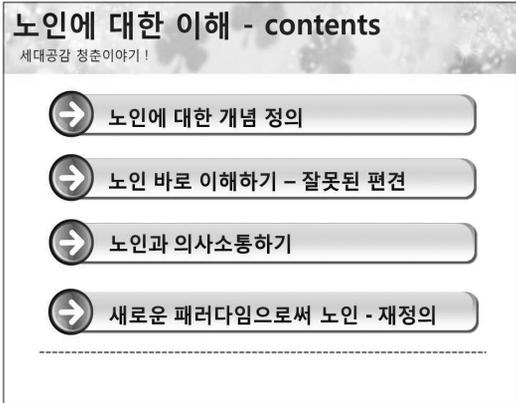
지역사회의 리더이다!

나) 참가 청소년들은 노인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어르신들을 만나 그들의 인생과 경험, 경륜을 통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뿐 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체득하게 된다.

활동 Point

본 프로그램에서 노인세대의 의미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서로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대인이해와 관계형성이라는 역량요소의 증진을 위해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설정된 중요 포인트다. 따라서 노인세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편견해소는 프로그램 전체의 맥락에 해당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며 지식의 습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노인세대 이해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과 연계하고 전문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 자료제공 _ 강서노인종합사회복지관 장은주

→ 노인에 대한 개념 정의

노인특성

- 1) 생물학적 특성 : 흰머리, 주름, 골격 약화, 근육 기능의 저하, 시력감퇴 등
- 2) 심리적 특성: 의존성의 증가, 고독, 소외감, 자녀와의 갈등
- 3) 사회적 특성: 사회적 지위와 역할 축소, 가사결정권 축소
- 4) 경제적 특성: 경제적 상실, 빈곤문제 발생

노인복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차원에서 조직적 제반 활동"

→ 노인에 대한 개념 정의

발달 단계로 보는 노인

단계별 과업

- 유아기 : 자신감
- 초기아동기 : 의지
- 학령전기 : 목표, 도덕적 개념
- 학령기 : 학습과 행동강화 능력
- 청소년기 : 성실과 주체성(허무, 무력감으로 인한 일탈행위발생.)
- 성인초기 : 사랑할 수 있는 능력
- 성인기 : 보호(배려), 부양의무
- 노년기 : 지혜

→ 노인 바로 이해하기- 잘못된 편견

노인은 @@@ 이다.

- ★ 노인은 쟁쟁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
- ★ 노인은 컴퓨터를 모른다.(정보에 둔아다)
- ★ 노인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스스로)
- ★ 노인은 의존적이다.
- ★ 노인은 시켜붙어고 고리타분하다.

→ 노인 바로 이해하기- 잘못된 편견

노인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몸이 변한다
- 우울증 경향 증가
- 시각,생각,미각,후각이 둔해진다
-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조심성증가)
- 생애 대안 외상

→ 노인 바로 이해하기- 잘못된 편견

노인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 의존성 증가
- 영역알 지각의 변화 => 모든 노인이 같지는 않다

→ 노인과 의사소통하기

◇ **의사소통**

- 상호 간의 의견이나 관심 등 표현을 주고 받는 것

◇ **의사소통의 방법**

- 언어적: 언어
- 비언어적: 손짓, 몸짓, 표정, 시선 등
- 의사소통은 오감을 통해서 이루어짐.
(시각60%, 청각20%, 촉각15%, 미각7%, 후각3%)

노인과 의사소통하기

◇ 의사소통 돕기

- 좋은 대화를 하려면 신뢰형성이 우선
- 상대방을 공감, 의견존중, 관심표현
- 공감이란? 상대방과 같은 감정을 느낌

노인과 의사소통하기

1) 의사소통의 기본 자세

- 공감: 눈맞춤, 고개 기울임
- 이해: 고덕임과 추임새,
- 수용: 있는 그대로 인정, 손을 잡아줌,
- 자기결정을 지지해 줌

=> 라포(RAPPORT): 관계, 접촉, 일치 등의 의미
대상자와 신뢰감을 쌓아가는 과정

노인과 의사소통하기

2) 잘 듣기 위한 자세

- 대화의 자신감을 갖도록 이해한 척 하지 않음
- 표정이나 상황을 헤아림
- 반복해서 말하지 않도록 들은 내용을 확인해주며 인내심을 가지고 청취
- 대화에 집중함



노인과 의사소통하기

3) 잘 말하기 위한 방법

- 정면을 향해 천천히 말함
- 쉬운 언어로 말함
- 반복해서 이야기 함.
- 짧은 문장으로 말함 (외래어, 유행어 금지)
-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방법 활용



노인과 의사소통하기

4) 의사소통 시 유의점

-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 인상이 중요, 단정한 외모
 - 너무 작거나 크게 말하지 않음
 - 본인의 이름, 소속단체와 역할 소개
 - 대상자의 호칭(이름, 어르신)

노인과 의사소통하기 - 관계 중심

5) 기본적인 노인의 욕구

- 기억되기를 바란다.
- 환영받고 싶어한다.
- 관심받고 싶어하며 존경받고 싶어한다.
- 편안하고 칭찬받고 싶어한다.

→ 노인과의 의사소통하기 - 관계 중심

6)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

- 얼굴표정
- 자세
- 시선
- 어조



→ 노인과의 의사소통하기 - 관계 중심

7) 마음을 여는 대화법

- 잘 듣는다(경청)
- 비언어적 대화의 중요성을 기억
- 긍정화법으로 시작
- 자존심을 건드리지않고 단정적인 화법(NO)
- 미소와 인사로 시작
- EYE-CONTACT : 눈으로 말하기

→ 노인과의 의사소통하기 - 관계 중심

8) 의사소통 장애요인

- 노인성 난청
 - 난청에 대한 이해(퇴행성, 난치)
 - 보청기 사용
 - 행동, 표정에 민감(시각에 민감)
- 시각장애
 -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
 - 언어에 민감(청각의 발달)

→ 노인과의 의사소통하기 - 관계 중심

• 언어장애

- 언어장애에 대한 이해

• 판단력, 이해력 장애

-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대화
- 비언어적인 수단 병행
- 실물, 문자, 그림을 보여줌

특히 아이처럼 취급해 반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

→ 새로운 패러다임- 노인에 대한 재정의

제 1장 노인은 경쟁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한다.
 아니다 "노인은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제 2장 노인은 UCC를 모른다.
 아니다 "우리는 UCC 전문가다."

제 3장 노인은 컴퓨터를 모른다.
 아니다 "노인은 정보와 사회의 선도사다."

제 4장 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다 "노인은 지역사회 의 리더이다."

Epilogue



www.uccg.com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3차

글과 인연맺기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3차 - 글과 인연맺기

활동명	프로그램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③ - 글과 인연 맺기(자서전 쓰는 방법) -	활동장소	실내 강의실
담당자	논술 전문 강사, 청소년지도사	활동시간	3시간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은 특강을 통해 어르신 자서전 집필에 대한 개념을 확립할 수 있다. ■ 청소년들은 특강을 통해 글쓰기 방법과 글쓰기 순서를 이해할 수 있다. 		
유의 사항	■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		
단계	주요활동내용	시간	준비물
	1)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이번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한다. 2) 강연자 소개 후 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0"	
전개	3) 강연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서전과 자서전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서전이란 무엇인가? ② 노인과 자서전의 상관관계 ■ 자서전 쓰기 형태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인적 자서전 쓰기 ② 자서전 받아쓰기(대필 자서전) ■ 자서전 쓰기의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제의 중요성 ② 주요 주제 ③ 연대표 만들기 ■ 자서전 쓰기의 자료 ■ 글쓰기를 위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떻게 써야 할까? ② 효과적인 글쓰기 순서 ■ 자서전 쓰기의 후속 작업 	160"	자서전교재, 필기구, 명찰, 카메라
마무리	4) 평가 및 마무리 - 참가 청소년들은 강연에 대한 활동 소감을 서로 나누며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 다음 프로그램 안내 후,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10"	

→ 활동목표

- 참가 청소년들은 특강을 통해 어르신 자서전 집필에 대한 개념을 확립할 수 있다.
- 참가 청소년들은 특강을 통해 글쓰기 방법과 글쓰기 순서를 이해할 수 있다.
- 자서전 쓰기의 중요 요소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애사적 측면에서의 삶을 이해하게 한다.

→ 활동개요

참가 청소년들은 자서전 글쓰기 방법을 익힘으로써 읽기, 듣기, 쓰기와 같은 기초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 특히 자서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청소년과 어르신 간에 소통의 장과 세대간의 통합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본 활동은 배경지식을 전달하는 활동으로 청소년지도사가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글쓰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문가는 소설가, 자서전 집필가등 문인들도 좋지만 이미 수련관에서 활동하는 논술, 글쓰기 등의 전문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연속성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지역의 문인협회와 같은 단체를 확인하여 관계를 맺어두는 것도 향후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위한 인력-풀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단체는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문화체육과에 등록되어 있다.

→ 준비사항

자서전 교재, 필기구, 명찰, 카메라

→ 활동전개

도입

- 가) 지도자는 자서전의 개념과 노인과 자서전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 나) 지도자는 참가 청소년들이 어르신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큰 의미부여를 주도록 한다.

전개

- 가) 자서전 쓰기 형태 및 활용에 대해 설명한다.
 - 개인적 자서전 쓰기/ 자서전 받아쓰기(대필 자서전)
- 나) 예시로 제시된 연대표를 통해 자서전 쓰기의 주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주제의 중요성 - 회상의 근거를 제공한다.

- 자서전을 읽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 독자로 하여금 공감하도록 한다.

주요 주제 - 인생의 전환점, 가족, 일과 역할, 사랑과 증오, 건강, 고난과 역경, 인간관계, 학문과 예술, 신념과 가치관, 이별과 죽음

연대표 작성 - 시간 기록하기 → 개인사건 기록하기 → 가족사건(관계) 기록하기
→ 사회적 주요 사건 기록하기

- 다) 자서전 쓰기의 자료에 대해 살펴본다.
 - 회상, 일기, 사진, 메모와 기록, 편지와 카드, 주변의 증언 등
- 라) 글쓰기를 위한 준비단계로 효과적인 글쓰기 순서에 대해 익힌다.
 - 주제 설정 → 소재 선택 → 구상 → 집필 → 퇴고

→ 활동 마무리와 검토

- 가) 지도자는 참가 청소년들이 자서전 쓰기에 대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 나) 청소년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중요한 순간들을 떠올려보고 이야기하며 마무리한다.

활동 Point

본 프로그램은 참가자 모집 과정에서 이미 글쓰기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신청하여 모여진 집단이므로 글쓰기 자체보다는 자서전에서 글을 전개하여 나가는데 필요한 중요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하는데 초점을 두어 강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자서전을 쓰는 방법에 대한 지식의 전달은 단순히 글쓰기 방법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라기보다 향후 그들 스스로가 어르신을 만나고 인터뷰를 계획하고 글을 구성해 나가는 활동을 계획할 때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4차
세상과 마주하다

→ 활동목표

-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생 연대표와 인생 그래프 작성을 통해 자신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청소년들은 웰-다잉 체험(유서쓰기)을 통해 노년의 삶을 이해하고,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

→ 활동개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률 급증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랑과 생명의 존엄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생 연대표와 인생 그래프 작성, 유서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인생 노년에 맞이하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식시킨다.

→ 준비사항

활동시트지, 필기구, 싸인펜, 크레파스, 명찰, 노트북, 빔프로젝트, 마이크, 스피커, 배경음악, 동영상, 카메라

→ 활동전개

도입

- 가) 참가 청소년들에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노년의 삶은 어떠한지 질문을 던진다.
- 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두 그룹의 유명인사 사진을 보여준다.



<그림 1-1> 그림준비 하기

- A그룹: 故 최진실, 故 최진영, 故 박용하, 故 이은주 등
- B그룹: 故 김수환 추기경, 故 앙드레 김, 故 법정 스님

- 다) 그룹의 사진이 보여주며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질문을 한다.

A그룹의 경우 한 번의 삶을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불우하게 마무리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를 동정할 수도 있고 아쉬워 할 수 있으나 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신의 삶 역시 자신만의 것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며 사회적 책무성이 있음을 이야기 하고 B 그룹과 같이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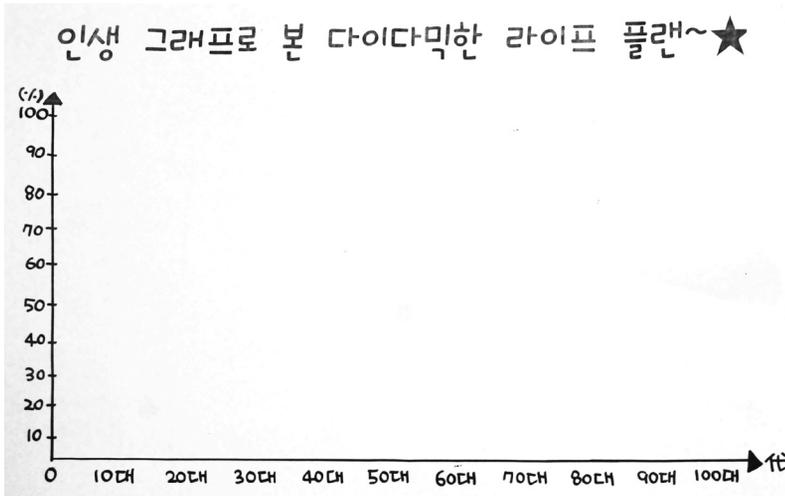
- 라) 웰다잉의 개념을 설명하며, 훗날 노년의 마지막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시키며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로서의 노년의 삶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개

활동 I _ 인생 맛 좀 보자!(인생 연대표/인생 그래프 작성)

가)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지어 자신의 생애 가장 의미있(었던)/(는)/(을) 순간들을 주어진 활동 시트에 간략히 한 줄로 기록한다.

내 인생 그래프 양식



나) 나이에 별 이루고 싶은 꿈/포부/계획들을 정하여 키워드로 설정하고, 삶의 만족도를 퍼센트(%)로 표시하면서 막대그래프 또는 꺾은선 그래프로 자신만의 인생 그래프를 작성한다.

「가로축 - 나이(代), 세로축 - 삶의 만족도(%)」

다) 작성 후, 발표 시간을 갖는다.



활동 II_ 웰다잉(well-dying) 체험! 두 번 살다(유서쓰기)

가) 이전 시간에 작성했던 인생 그래프 내용을 바탕으로 죽음을 하루 앞둔 노인이라는 가정 상황임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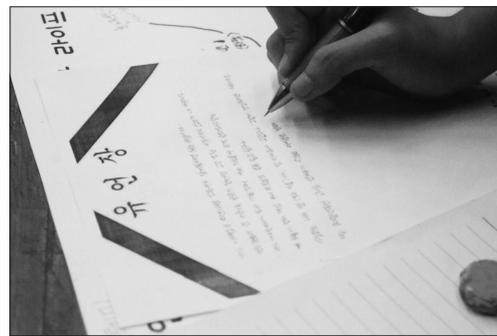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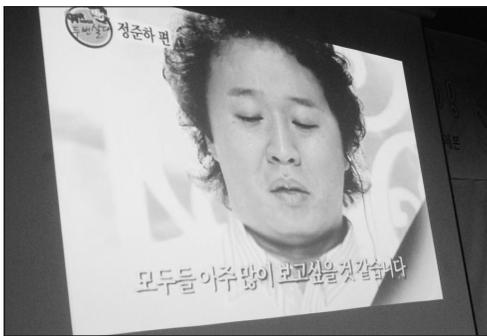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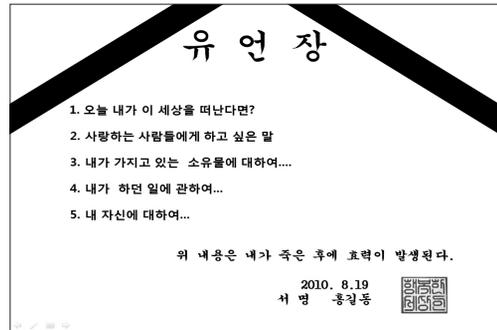
나) '유서' 라는 단어가 아직 생소한 학생들에게 얼마 전 중영된 MBC 프로그램 「명랑히어로 - 두 번 살다」 (개그맨 정준하 편) 동영상을 보여준다.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갖고 '바보' 캐릭터로 주목받는 이면에 숨겨진 자신의 내면, 그리고 살아 온 이야기, 주변 지인들에 대한 고마움, 자기 반성 등을 '유서'라는 매개체로 진솔함을 전달하여 시청자들의 큰 감동을 줌

다) 유서에 담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눈을 감도록 유도한다. 약 3~4분 동안 잔잔한 배경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이 살아온 여정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도록 생각의 시간을 갖는다.

'유서'라는 소재가 자칫 청소년들에게 자극적일 수 있음에 유의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서전 집필이라는 활동을 위하여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생을 마감하는 단계에 들어선 노인들의 지나온 삶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의 분위기를 지나치게 엄숙하게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라) 음악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유서쓰기 활동을 시작한다.



마) 유언장 작성 후, 발표 시간을 갖는다.

발표 내용에 공감과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시간을 이용하여 자칫 무거운 분위기가 될 수 있었던 사항들을 해소하는 기회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냥 재미있고 유쾌한 분위기로 마무리 되어도 좋다. 청소년들은 이미 이러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자신만의 자연스러운 학습에 시간이 된다.

→ 활동 마무리와 검토

- 가) 참가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 소감을 서로 나누며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 나) 참가 청소년들은 인생 연대표와 인생 그래프 그리기, 유서쓰기 체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함으로써 노년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다) 다음 프로그램 안내 후,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활동 Point

'죽음'이라는 단어 'Well-dying'이라는 개념이 자칫 청소년들에게 자극적일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즉 이 과정의 프로그램은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노인세대의 화두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존감의 성찰을 유도하고자 하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다. 따라서 너무 가벼이 진행해서도 안되지만 너무 진지하거나 비관적인 흐름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따라서 TV 예능프로그램이었던 동영상의 활용과 그와 같은 진행이 효과적이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세대공감! 청춘 이야기 4차 사전교육



인생! 맛 좀 보자

인생 연대표 / 그래프 작성

세대공감! 청춘 이야기 웰다잉(well-dying) 체험



두번살다



Q. 웰다잉?

정신적, 육체적으로 품위있고 자연스러운 죽음

A.

Q. 유서쓰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과거와 현재의 나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나를 재설계해보는 인생 중간 점검 시간!

A.

활동시트지 양식(1)

내 생애 연대표

조 이름

구분	년도	내 생애 의미있(었던)/(는)/(을) 순간들을 한 줄로 기록해 보세요
과거	년	
	년	
	년	
	년	
	년	
현재	년	
	년	
	년	
	년	
	년	
미래	년	
	년	
	년	
	년	
	년	

유언장

위 내용은 내가 죽은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2010. 8. 19

서명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5차

어르신 만나기 100m 전 [어르신 인터뷰 방법]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5차 - 어른신 만나기 100m 전 [어르신 인터뷰 방법]

활동명	프로그램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⑤ - 어른신 만나기 100m 전(1) - (어르신 인터뷰 방법)	활동장소	강서청소년회관
담당자	신문기자, 청소년지도사	활동시간	2시간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에 있을 자서전 집필에 필요한 어르신 인터뷰 진행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 청소년들이 인터뷰 방법 습득을 통해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간의 소통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유의 사항			
단계	주요활동내용	시간	준비물
	1)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이번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한다. 2) 강연자 소개 후 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0"	
전개	3) 강연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진행에 관한 필수사항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사소통이란? ② 효과적인 인터뷰 진행 방법 ③ 어르신 인터뷰 진행시 유의사항 ■ 예상 질문 리스트 만들기 ■ 인터뷰 사전 모의 테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인이 한 조를 이루어 예상 질문을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② 인터뷰를 진행한 후,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한다. 	100"	노트북, 빔프로젝터,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 필기구, 명찰
마무리	4) 평가 및 마무리 - 참가 청소년들은 강연에 대한 활동 소감을 서로 나누며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 다음 프로그램 안내 후,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10"	

→ 활동목표

- 참가 청소년들은 추후에 있을 자서전 집필에 필요한 어르신 인터뷰 진행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 참가 청소년들은 인터뷰 방법 습득을 통해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간의 소통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활동개요

참가 청소년들이 어르신을 만나 인터뷰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을 숙지하도록 한다.

본 활동은 수련관의 청소년지도자 보다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하는 것이 좋다. 전문강사로는 시나리오작가, 전문MC, 아나운서, 신문기자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현직 또는 전직 경력자를 섭외한다. 섭외된 전문강사에게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실습위주의 강의가 되도록 미리 협의 한다.

→ 준비사항

노트북, 빔프로젝터,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 필기구, 명찰

→ 활동전개

가) 지도자는 참가 청소년들에게 인터뷰 진행에 관한 필수 사항들을 설명한다.

인터뷰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점

- 질문을 큰 소리로 연습해 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들어보라.
-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게 하는 것도 고려한다.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시켜보면 때때로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 반감이나 견해 차이는 종종 좋은 상황을 만들어 낸다.
- 사전 조사를 통해 인터뷰 상대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예측한다.
- 질문의 초점을 명확히 한다.
- 어떤 환경이 가장 적합한지 고려한다.

나) 참가 청소년들은 어르신에 대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연습한다.

질문예시) 주제 설정 - 인생의 전환점

1. 당신은 살아오면서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몇 번이나 만났나요?
2.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언제였나요?
3. 각각의 전환점에서 당신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선택으로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4.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의 모듬원이나 그가 당신에게 준 영향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당신은 스스로 모든 선택을 결정했나요?

다) 주제 설정 방향에 따라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나올 수 있음을 알려준다.

라) 2인이 한 모둠을 이루어 만든 예상 질문을 토대로 인터뷰 사전 모의 테스트를 진행한다.

모의 인터뷰는 모둠내에서 한사람을 피인터뷰자로 하고 예상 질문지 리스트를 작성하여 진행한다. 또한 피인터뷰자의 인터뷰 이후의 각각의 질문에 따른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질문자의 언어사용, 태도, 눈빛 맞추기 등 리액션에 따른 피인터뷰자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교정하는 등의 실습을 한다.

마) 인터뷰 진행 후,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을 지도자와 참가 청소년들 간에 공유한다.

인터뷰 진행시 유의할 점

-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메모지에 질문을 적어서 가지고 있다.
- 질문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작되는 부분을 자세히 듣는다.
- 인터뷰 상대자를 계속 주시하며, 딴 짓하지 않는다.
- 상대가 말하기 원하는 것을 파악하도록 한다.
-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가끔 행동으로 반응을 나타낸다.
- 가끔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서 진실을 끄집어 낸다.
- 처음에는 편안한 질문을 하고, 답변하기 어렵거나 자세한 질문은 나중에 한다.
-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주장을 지지하고 흥미를 끄는 예나 이야기를 물어본다.
- 답변이 서툴거나 길면,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한다.
- 다음 질문을 서두르지 않는다.
-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질문은 삼간다.
- 한번에 한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

→ 활동 마무리와 검토

지도자는 참가 청소년들에게 인터뷰 진행시 유창한 언변 보다는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질문 준비, 정보 수집, 정확한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무리 한다.

활동 Point

본 프로그램인 [청춘이야기]는 '어르신 자서전'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세대간의 공감과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자서전'을 잘 집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서전'이라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하여 어르신과 잘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청소년들이 어르신을 인터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된다. 또한 적극적 경청, 대인이해, 관계형성 등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량을 증진하는 집약적인 행위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상대와 대화하며 상대의 깊은 생각까지도 이끌어 내어 듣고자 하는 인터뷰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론적인 방법을 전달하기보다는 방송작가, 아나운서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인을 강사로 섭외하여 그들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습득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강사에게 본 프로그램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 강사 역시 청소년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르신 자서전 집필 프로젝트 봉사단

세대공감! 청춘 이야기

어르신 인터뷰 질문 유형에 대해 파헤치자!

1_ 나의 출생과 어린시절

- 가족 계보에 대해 많은 이름을 기록해 본다. 태어난 곳, 살았던 곳,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들을 모두 기록하라.
-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가? 탄생이나 유아기에 대해 들은 것에는 무엇이 있으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는가?
- 어릴 때는 어디에 살았으며, 누구와 함께 살았는가?
-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을 그려 보고 어디서 놀았는가?
- 당신의 별명은 무엇이며, 학교는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했는가?
- 어린 시절 친구들은 누구였는가? 그 친구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가?
-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무엇을 했는가?
- 어린 자신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는가?
- 가족의 명절맞이는 어떠했는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웠던 때를 모사해 보라.
- 선물로 받은 것 중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가장 특별한 선물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 어린아이인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 오늘날의 자신을 만든 밑거름이 된 행동과 경험은 무엇이었는가?

2. 청소년기

- 당시 어디에 살았고, 누구와 살았는가? 그 시기 가족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묘사해 보라.
 -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를 다녔는가? 학교 전체와 학습의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었는가?
 - 가장 친했던 친구에 대해 말해 보라.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가? 만나서는 무엇을 했나?
 - 청소년기에 즐겼던 음악에 대해 써 보라.
 - 첫눈에 반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
 - 어른들이나 반 친구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느꼈는가?
 - 당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 10대 시절, 가장 어렵게 느꼈던 일은 무엇이었나?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떠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 방과후에 무엇을 했는가?
 - 청소년기를 거치며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부모님과 보낸 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려 보라.
 - 당신이 미래에 대해 바랬던 꿈과 야망은 무엇인가?
 - 10대로서 가치있다고 여긴 일은 무엇이었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상은 무엇이었나?
-

3_ 20대와 30대, 어른이 되어

- 성인으로서 삶을 대학에서 시작했다면 왜, 어떤 기준으로 그 대학을 선택했는가?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 자신의 첫 직업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것을 선택했는가?
 - 그 당시 가족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부모님과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 집을 떠나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일이었는가? 떠나도록 준비하는 데 누가 도움을 주었으며 어떤 식이 있었는가?
 - 친구들은 누구였으며, 함께 모여 무엇을 즐겨했는가?
 - 사랑에 대해 말해보라. 품었던 환상에 대해,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 그것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고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 언제 진짜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는가?
 - 인생의 한 기간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
 -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언제인가? 그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 있었는가? 그는 누구인가?
-

4_ 결혼생활

- 서로에게 강하게 끌린 때는 언제인가?
- 결혼할 당시의 배우자에 대해 말해 보라. 배우자의 특성 중 결혼 생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은 무엇인가?
- 신혼여행에 대해 말해 보라. 며칠을 다녀왔으며 누가 계획을 세웠고 어디로 갔는가?
- 결혼 이후 직면하게 된 놀라운 일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배우자에 대해 몰랐던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 처음 산 곳은 어디였고 어떻게 그 집을 마련했는가?
- 결혼 초기 상대와 함께 해 가장 좋았던 때를 기억해 보라.
- 시댁 또는 처가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 결혼 초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는가?
- 결혼 생활에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적 유행은 무엇인가?
- 결혼 생활 동안 가장 힘든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배우자의 주된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5_ 부모가 되어

- 언제 첫아이가 태어났는가?
- 아이의 출산 소식에 친지들과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떤 꿈을 꾸었는가?
- 아이가 태어난 첫 순간의 기억을 말해보라.
- 부모로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었으며,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아이들에 대해 품었던 꿈은 무엇인가? 그러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 아이가 다섯 살이 되기 전에 일상적으로 했던 일을 말해보라.
- 자신이 되고자 했던 부모의 모습이 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제대로 퍼지 못하게 만든 인생의 어려운 난관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 가족이 함께 했던 기념일은 언제인가? 특별했던 기념일에 대해 설명해 보라.
- 명절이나 행사에서 부모로서 한 역할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가?
- 자신의 직업이나 취미가 아이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가?

6_ 중년으로 접어들어

- 중년으로 접어드는 시기, 당신의 가족에 대해 말해 보라.
 - 당시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 보라.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있었는가?
 - 40대의 어느날, 평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설명해 보라.
 - 50대의 어디쯤으로 돌아가 보라. 그때의 일상은 40대의 일상과 어떻게 달라졌는가?
 - 그 시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깊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 시간이 더 충분했으면 꼭 했을 것 같은 일은 무엇인가?
 -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꼭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인가?
 - 뒤늦게 깨달은 것으로, 지금이라면 다른 선택을 하리라 여겨지는 일은 무엇인가?
 -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았던 일은 무엇인가?
 - 살아온 인생을 놓고 볼 때 그 시기 중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였는가?
-

7_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 손자들의 이름과 나이, 출생년도를 적어 보라. 아이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 태어난 손자를 보았을 때의 느낌은 어떠했는가?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묘사해 보라.
- 조부모가 된 당신의 앞으로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 보았는가?
- 조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 조부모가 되어 지금까지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자식들이 아이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떤 조언을 해 주겠는가?
- 손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었는가? 그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 아이들 모두에게 조부모로서 격려의 말을 남겨 보자.
- 손자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해 보라.
- 손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가?

8_ 노년을 보내며

- 평일이나 주말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 지금의 자신에 대해서 묘사해 보라.
 - 오늘날 자신의 모습은 스스로 예상했던 것과 어떻게 다른가?
 - 수입원은 어디인가?
 - 지금 건강은 어떠한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는 가족은 누구인가? 그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는가?
 - 지금 인생의 동반자로서 가장 만족스런 사람은 누구인가? 왜 그러한가?
 -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만나서 무엇을 함께 하고 싶은가?
 - 지금 시기 가장 큰 걱정거리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8_ 회상

- 60, 70, 80, 90, 100살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리라고 기대했는가? (또는 기대하고 있는가?)
-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에 대해 말해보라.
- 삶의 교훈이나 철학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 요즘의 삶이 아이들에게 힘들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이 당신 세대의 어떤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우리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를 말해 주었으면 한다.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6차

어르신과의 만남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 6차

어르신 만나기 100m전(2) - 어르신과의 만남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활동명	프로그램 배경지식을 위한 특강⑥ - 어르신 만나기 100m 전(2) - (어르신과의 만남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활동장소	강서청소년회관
담당자	청소년지도사	활동시간	2시간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 청소년들은 마인드 맵과 어르신 인터뷰 활동 계획서 작성을 통해 본 프로젝트 계획을 구체화, 체계화 할 수 있다. ■ 참가 청소년들은 모둠 구성원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절차와 소통의 중요성을 익혀나갈 수 있다.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적인 설명이 되지 않도록 참가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한다. 		
단계	주요활동내용	시간	준비물
전개	1) 각 모듈별 인원파악을 한다. 2)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이번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한다.	10"	마이크, 카메라, 전지, 활동시트지, 싸인펜, 크레파스, 필기구, 명찰
	3) 활동 프로그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공감 청춘 이야기! 마인드맵으로 이야기하자! ① 본 프로그램에 마인드맵 작성의 필요성(계획 수립의 구체화/체계화)을 설명한다. ② 마인드 맵 작성 요령과 작성 시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③ 각 모듈별로 전지와 싸인펜, 크레파스, 필기구를 배부하여 각 모듈 별 특색 있게 마인드맵을 완성시켜 나간다. ④ 발표하여 공유한다.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인터뷰 활동 계획서 작성 마인드맵 작성을 기초로 하여 각 모듈 별 역할분담, 어르신 인터뷰 세부 일정, 주제, 장소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0"	
마무리	4) 평가 및 마무리 - 참가 청소년들은 강연에 대한 활동 소감을 서로 나누며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 다음 프로그램 안내 후,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10"	

→ 활동목표

- 가) 참가 청소년들은 마인드 맵과 어르신 인터뷰 활동 계획서 작성을 통해 본 프로젝트 계획을 구체화, 체계화 할 수 있다.
- 나) 참가 청소년들은 모둠 구성원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절차와 소통의 중요성을 익혀나갈 수 있다.

→ 활동개요

그동안의 사전교육을 통하여 배운 것을 바탕으로 어르신과 만나 인터뷰 활동을 하기 전에 숙지해야 할 부분들을 마인드 맵 작성과 인터뷰활동 계획서 작성을 통해 구성원과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

→ 준비사항

마이크, 카메라, 전지, 활동시트지, 싸인펜, 크레파스, 필기구, 명찰

→ 활동전개

도입

- 가) 지도자는 어르신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기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참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다.
- 나) 막연한 질문공세 보다는 체계적인 사전 준비 작업을 통해 인터뷰에 접근했을 때, 양질의 대답을 유도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 다) 그렇다면 체계적인 사전 준비 작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미리 준비된 마인드 맵을 보여준다.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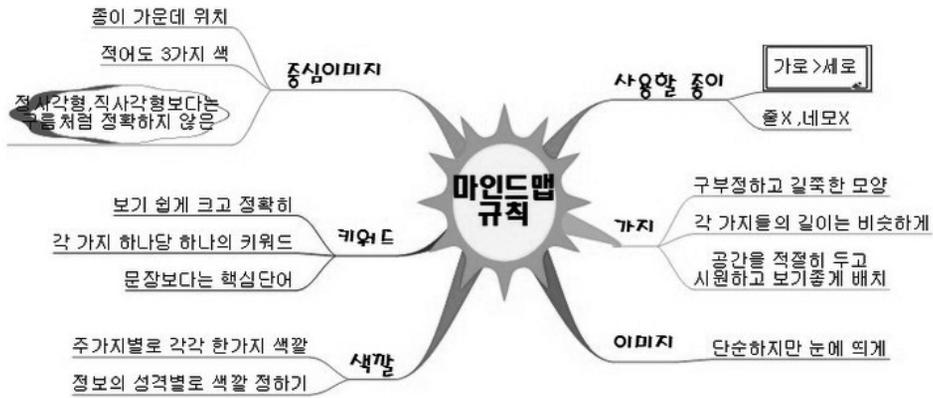
활동 I _ 세대공감 청춘 이야기! 마인드맵으로 이야기하자!

- 가) 어르신 인터뷰 활동의 계획 수립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마인드맵 작성의 필요성을 알려준다.

마인드맵 정의 설명 마인드맵이란? 머리 속의 생각을 마치 거미줄처럼 지도를 그리듯이 핵심어를 이미지화 하여 펼쳐나가는 기법으로 자신의 머리 속에 있는 사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미지 형상화 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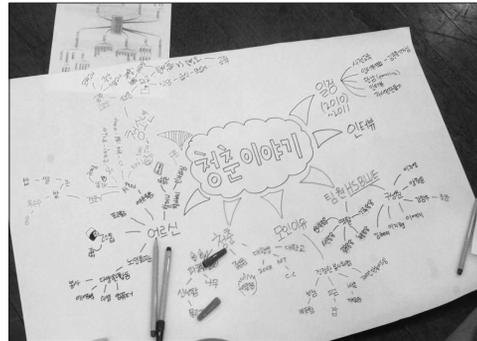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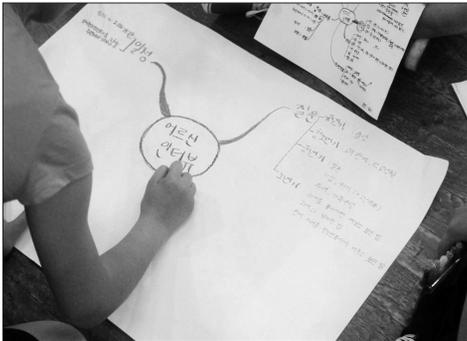
마인드맵 기능 설명 마인드맵은 그림과 핵심단어, 색과 부호를 사용하여 좌·우뇌의 기능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두뇌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시간 절약, 능률이 오르는 공부를 가능하게 한다.

나) 마인드 맵 작성 요령과 작성 시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다) 본격적으로 각 모듈별로 전지와 싸인펜, 크레파스, 필기구를 배부하여 '어르신 인터뷰 활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모듈 별 특색있는 마인드맵을 완성시켜 나간다.

라) 완성된 후, 발표하여 활동 계획을 공유한다.



활동II_ 어른신 인터뷰 인터뷰 활동 계획서 작성

- 가) 마인드맵 작성을 기초로 하여 각 모듈 별 어른신 인터뷰 활동에 필요한 역할 배정을 정한다.
단, 인터뷰 진행시 활동 일지 작성은 공평하게 모듈 구성원 모두가 한번 씩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역할 배정 후 세부 일정을 잡는다. 추후 어른신과의 만남 때 구체적인 모임 장소 및 시간 등을 협의 하에 모듈정하도록 한다.
- 다) 일정에 따른 인터뷰 주제 방향을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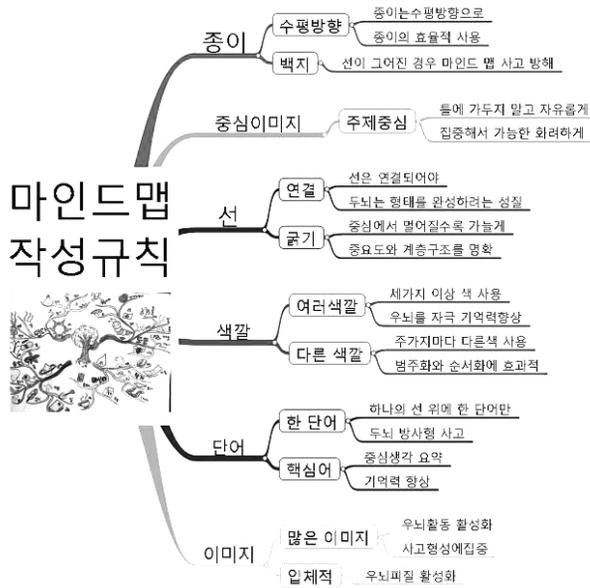
→ 활동 마무리와 검토

참가 청소년들은 마인드맵 작성과 어른신 인터뷰 활동 계획서 작성을 통해 모듈 구성원과의 협의 과정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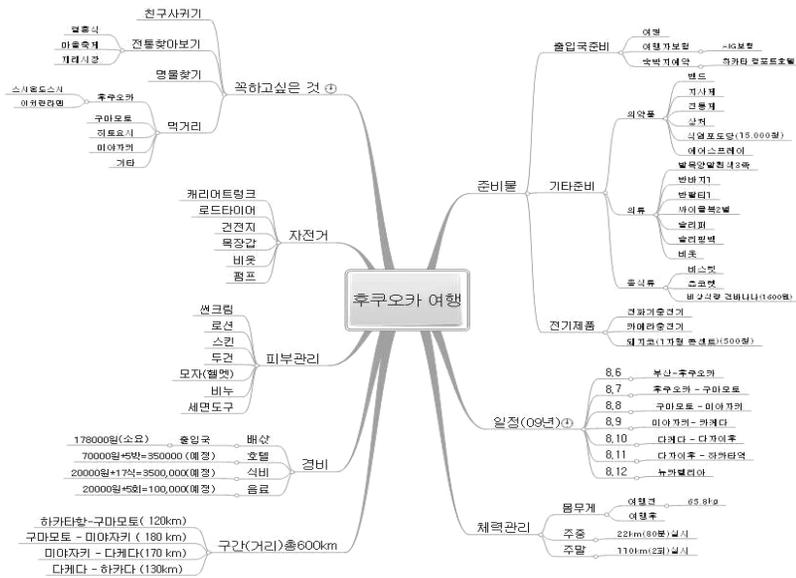
활동 Point

사전교육의 마지막 시간으로 활동에 들어가기 전 청소년들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모듈구성원들 간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지도자의 개입보다는 청소년들 스스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이 작성한 마인드 맵, 활동 계획서 등을 모두에게 발표하는 시간은 실제로는 그들 스스로 앞으로 활동에 대한 약속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작성된 마인드 맵이나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복사하여 지도자와 모듈구성원 모두가 나누어 가지도록 하며 활동 과정에서 계획이 바뀌는 경우 이를 항상 지도자에게 보고하게 한다.

활동 자료1 → 마인드맵 작성규칙



활동 자료2 → 마인드맵 작성 예시



인터뷰 계획서 양식

어르신 자서전 집필 프로젝트 봉사단 『세대공감! 청춘 이야기』

어르신 인터뷰 활동 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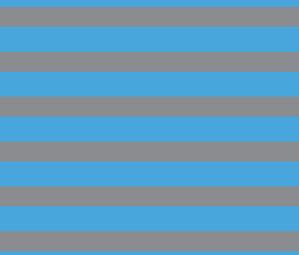
모듬명		대표자	
참가자			
역할 분담			

어르신 인터뷰 세부 진행 일정 (2010. 9. 13 ~ 12. 18)

※ 단, 공개 모임은 10/9(토), 11/13(토)에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이 일정까지 포함해서 총 6회 일정으로 작성해 주세요

일 정	시 간	주요 내용	장 소
월 일 ()	~		
월 일 ()	~		
월 일 ()	~		
월 일 ()	~		
월 일 ()	~		
월 일 ()	~		
월 일 ()	~		

기 타			
-----	--	--	--



Ⅲ. 어르신과의 만남과 활동지도

청소년수련관기반지도매뉴얼 Ⅱ : 사회성 프로그램

청소년과 어른의 만남과 '자서전'을 매개로 한 소통은 본 프로그램에 기본 맥락이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구체적 활동이다. 프로그램의 시간 계획은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사전교육을 하며 겨울방학이 되기 전 3개월 사이에 각 모듈별로 한분의 어른을 지정하여 주고 청소년 어른의 시간에 맞추어 6회 이상을 자율적으로 만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전체 청소년과 어른이 모두 함께 모이는 상견례 시간과 중간점검 차원에서 만나는 2회의 공개모임 시간을 계획하였다. 상견례 시간을 제외한 두 차례의 공개모임 시간은 특별한 행사나 프로그램 없이 모여 인사를 나누고 전달사항과 활동사항을 보고한 뒤 곧바로 배정된 각 강의실에서 모듈별 인터뷰를 진행한다.

가_ 상견례

본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시간으로 청소년들과 어른이 처음 만나는 시간이 된다. 또한 각 모듈별 소개, 어른 소개, 어른과 청소년들 간의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한 즐거운 놀이의 시간 등으로 진행한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앞으로 모듈별 자발적인 만남이 어색하게 되지 않도록 하며 청소년들의 생활시간과 어른의 시간을 조정하여 앞으로의 만남의 시간을 정하게 된다.

진행순서	세부 내용	소요 시간
1	■ 기관 소개	5분
2	■ <세대공감! 청춘이야기> 프로젝트 소개 ■ 추진일정 소개	5분
3	■ 각 모듈 소개(대표 모듈장) - 모듈소개, 지원동기, 활동 각오, 어른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듈만의 필살기	10분
4	■ 어른 소개 및 모듈별 배치	5분
5	■ 모듈별 어른과 대화시간 - 자기 소개, 연락처 공유	20분
6	■ 어른+청소년 관계형성 프로그램/레크레이션	30분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듈별 어르신 인터뷰 스케줄 조정 - 총 6회 이상 자율적 인터뷰 시간 조정 모듈별 어르신과 개별 모임 학생들이 사전에 짠 일정을 바탕으로 어르신과 시간, 장소 협의 	15분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응답 	5분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사진 	5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무리 및 정리 ■ 공지사항 전달 	5분

활동 Point

청소년들이 강당에 모두 모여 있는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단상으로 모셔져 앉은 채 청소년들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던 사전 교육과 오리엔테이션 시간과는 별도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행사의 전체내용 소개하며 시작한다. 청소년들은 사전교육을 통하여 이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으나, 어르신들과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어 청소년과 어르신 모두가 지나치게 감성적인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르신의 경우 평소에 접촉하기 어려웠던 청소년들과의 만남에 대하여 기대와 들뜬 감정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청소년들 역시 어르신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우쭐해 할 수 있기에 스스로가 어르신을 모시는 입장을 취하도록 한다.

나 _ 어른신 섭외와 간담회

본 프로그램은 함께하여 주실 어른신의 선정은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어른신 스스로가 청소년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배려하지 못하면 이러한 만남이 오히려 세대 간 반감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께하실 어른신의 경우 실제로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조력하는 한사람의 강사처럼 청소년들이 인터뷰하는 대상이 되지만 이를 통하여 자신의 생애를 반추하여 청소년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을 만큼의 명료한 목표를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이 가능한 분들로 미리 잘 알고 있는 어른신 동호회,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협조와 참여 어른신을 추천 받아 진행한다. 한편 사업의 주관자는 청소년을 만나기전 어른신들 간의 사전 상견례를 가지고 청소년 이해교육을 통하여 어른신들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어른신들 간 대담을 통하여 어른신들 스스로 몇 가지 원칙을 정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활동 Point

진행자의 입장에서 어른신들께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가르치려는 인상을 심지 않도록 주의하며 화제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 어른신들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고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며 주의사항을 만들게 되었다. 한편 청소년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어른신들은 기대에 부풀면서도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특히 자서전이라는 매개가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자서전을 쓸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급격히 변화가는 세상을 헤치며 살아온 것 자체가 존경스러운 것이며 이러한 모습과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후세들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임을 새삼 강조하며 용기를 북돋을 필요가 있다.

다_ 청소년과 모둠활동에서 어르신 주의사항

어르신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의 사항으로 정하여 질 수 있도록 화제를 이끌어 간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단순히 전달사항이 아닌 어르신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청소년들을 모둠활동이 아닌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모둠활동과 공동의 과제 수행을 통한 그들 상호간의 관계형성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 6명 중 4명이상이 참여하여 어르신과 만나야 함을 미리 공지하다. 따라서 한 두명이 개인적으로 찾아오거나 할 경우 만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고, 또한 이러한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 청소년들의 행동과 태도에 간섭하거나 욕박질러 가르치려하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들의 일상용어로 그것이 비속어 인지조차 모르고 쓰는 용어들을 미리 가르쳐 드리고 어르신들의 이해를 구한다. 청소년들이 쓰는 용어 중 '졸라'와 같은 용어들이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비속어이지만 청소년들 스스로는 '매우'의 다른 말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쓰는 용어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기를 부탁드리고, 다만 틀린 용어의 사용이나 잘못된 태도 등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고자 하지 마시고 메모하여 두었다가 시간이 지난 뒤 차분히 설명하여 주는 것이 효과적임을 전달한다.

■ 만남은 공개된 장소에서 하며 가급적 수련관 강의실을 이용한다

어르신들의 이동거리를 감안하여 어르신들의 활동범위 가까운 곳으로 청소년들이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좋지만, 어르신들과 합의하여 사회적 편견이나 오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련관 강의실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시범사업에서도 어르신들 스스로가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수련관 강의실을 제공 할 것을 요구 하였다. 또한 기관의 입장에서도 수련관이라는 시설의 지역사회에서 성인과 청소년의 교류의 장 역할로서 이용을 권장하고자 하였다.

■ 청소년과의 손을 잡는 정도 이상의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

이 또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어르신들이 스스로 정한 기준이다. 실제 시범사업에서의 활동 모습에서도 여성 어르신의 경우 손자 손녀와 같은 이들을 반가워하며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쉽게 보이곤 하였으나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이러한 모습조차도 자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어르신들과 미리 이야기 하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화두로 올려 어르신들 스스로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부 록

수련관 프로그램 시범 운영- 사회성 영역

자서전 집필 글쓰기 교재

자료제공 : 강서청소년회관 논술전문강사 류우창

목 차

I. 자서전과 자서전 쓰기	0
1. 자서전이란 무엇인가?	
2. 노인과 자서전	
3. 인생 회고와 자서전	
II. 자서전 쓰기 형태 및 활용	0
1. 개인적 자서전 쓰기	
2. 자서전 받아쓰기(대필 자서전)	
III. 자서전 쓰기의 주제	0
1. 주제의 중요성	
2. 주요 주제	
3. 연대표 만들기	
IV. 자서전 쓰기의 자료	0
V. 글쓰기를 위한 준비	0
1. 어떻게 써야 할까?	
2. 효과적인 글쓰기 순서	
VI. 자서전 쓰기의 후속 작업	0

1. 자서전과 자서전 쓰기

1 _ 자서전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의 역사적 자취를 기록하여 전하는 것을 전기(傳記, 傳記, 傳記)라고 하고 자기가 차례대로 쓴 자기의 전기를 '자서전(自述, 自述, 自述)'이라고 합니다.

1) 인생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미래로의 여행입니다 (개인적 의미)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이야기'의 작가인 동시에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써 나가는 '공동저자'입니다. 이렇게 삶이 어우러진 내 이야기를 찾아서 내 삶의 '특징'과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자서전 쓰기입니다.

2) 인생의 사건에 대처하는 스타일을 통해 '삶의 방식'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의미)

예컨대, 한국 노인의 자서전은 유교적 전통 안에서 한국 여성이 걸어온 질곡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한(恨; 恨, 恨)'이라고 하는 독특한 한국인의 정서가 녹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녀의 자서전을 통해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전통과 역사를 극복해온 한국 여인의 '지혜'와 '인내심' 있는 삶의 대응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3) 노인의 '언어'와 '상징'을 통해 그 개인의 삶 뿐 아니라,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환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화 관계적 의미)

이 할머니의 자서전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사고양식과 생활 패턴을 가진 서구 여성 노인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특징적인 자서전입니다.

한 사람의 자서전은 그가 살아온 세대의 문화적 조건에 대한 그 개인의 해석(이해)입니다. 각자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그가 처한 다양한 문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자서전은 특정 시대의 사회적인 혹은 법적인 규율이나 관습, 사회의 기대나 금기 등을 포함하는 그 시대의 도덕적 불문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서전은 한 개인을 전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2 _ 노인과 자서전

노인이란 "살아온 긴 생을 뒤고 갖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갈 삶의 희망이 매우 한정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삶의 조각과 같은 비늘(편린, 片 조각편, 鱗비늘린)들을 주위 담는 일은 노년의 행복에 중요한 공헌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글로 남겨질 때, 가족을 위한 중요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서전은 노년의 삶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생의 갈림길에서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_ 인생 회고와 자서전

추억에는 미술적인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노인에게 있어서 인생회고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일종의 정신치료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노년에 줄어들기 쉬운 개인적인 '효능감'과 '자존감'을 증가시켜 줍니다. 자서전 쓰기는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했었던 경로를 되짚어 보면서 존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둘째는 인생의 갈림길이 되었던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담담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의 화해이자 과거의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거에 자신이 주로 사용했던 '적용전략'을 인식하고, 그것을 현재의 문제 해결에 다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잃게 되거나, 직업의 전환, 은퇴나 황혼이혼, 자녀의 출가 등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잘 대처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가끔 이러한 회고과정이 고통스런 기억을 되살려냄으로써 오히려 심한 정서적인 격앙(激物결 부딪쳐 흐를 격, 昂오를양)상태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 죄책감이나 강박적인 성찰, 우울, 공포상태가 나타나면서 자기인식에 대한 '융통성' 보다는 '경직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회고를 통한 '자아통합'의 정도는 개인이 자기 인생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얼마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떠올림으로써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한 기억 속에서 슬픔과 분노, 행복과 그리움을 느끼게 됩니다.

II . 자서전 쓰기 형태 및 활용

자서전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글로 엮어 놓은 것을 말하지만, 그것을 담는 형식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쓰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반추(反되돌릴반, 芻毘어 묶은 풀 추)하면서 혼자서 쓰는 '개인적 자서전 쓰기',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어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쓰기 활동을 하는 '그룹 자서전 쓰기',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오디오 자서전 쓰기'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서전을 받아쓰게 하여 완성하는 '자서전 받아쓰기', 그리고 교육이나 연구 혹은 치료적 목적으로 자서전을 이용하는 경우의 자서전 쓰기도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학습활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공부하고 실습해 보겠습니다.

1_ 개인적 자서전 쓰기

장점은 글쓰기 과정을 통해 과거의 개인적인 경험과 회상을 종이 위에 적게 되고 되풀이하여 읽는 가운데, 관련 있는 기억들이 유도되어 과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현재를 더욱 성숙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독자에게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한 개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됩니다.

자서전을 쓸 때는,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성찰하여 과거의 상처나 아픔, 실패 등을 반성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한 점이나 업적, 미덕을 중심으로 인생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실패나 사건 등이 내 현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되새겨보고 정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자서전 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필료를 지불하면서 제3자에게 자서전을 집필하기보다는, 다소 서투르고 조악(粗거칠조, 惡추할악)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집필하는 과정에서 자기 삶에 대한 반성과 참회, 자긍심, 만족감 등을 얻는 것이 더 큰 수확이 되겠습니다.

2_ 자서전 받아쓰기 (대필 자서전)

자식이나 손자 등에게 받아쓰게 하여 완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서전을 쓰는 본인의 인생 역정을 정리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받아쓰는 사람에게 교육적 방법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더욱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형태는 자서전을 쓰는 당사자가 너무 고령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혹은 읽거나 특히 쓰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목적에서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식이나 손자를 상대로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2세대 혹은 3세대가 서로의 인생과 각자의 세계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서전을 받아쓰는 사람은 가족사(家族史)와 전통 등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어서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됩니다.

자서전 받아쓰기에 앞서, 구술자(具說者, 述者)와 기록자(記述者, 記者) 간에 '긴밀한 유대관계'(라포 Rapport) 형성이 꼭 필요합니다. 잘 모르는 관계에서 자서전을 대필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구술자와 기록자가 본격적인 구술에 앞서 한 두 차례 만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나누고, 대략적인 인생사나 가족관계 정도는 미리 익혀 두어야 구술 도중 이름을 일일이 되묻는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미리 구술자의 '연대표'를 작성하여 자서전의 기본 틀을 구상해 보고, 그에 따른 '의미 있는 사건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인 글쓰기가 됩니다.

자서전 받아쓰기의 방법은 구술하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면, 받아서 쓰는 사람은 그 내용을 녹음해 둡니다. 그러나 녹음 내용에만 의존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녹음기에는 구술자의 말소리만 들어갈 뿐, 화자(話者)의 감정이나 표정의 미묘한 변화 같은 것은 녹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녹음과 동시에 그 당시의 분위기나 구술자의 표정 변화, 그리고 가타 작은 일들까지도 메모를 해 두어야 합니다. 또 모든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대강의 내용을 '속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녹취나 속기록을 풀어쓰면서 줄거리를 만들어 갑니다.

자서전 받아쓰기는 구술자의 일방적인 구술 내용만 그대로 받아 적지 않고, 기록자가 적절할 때 '질문'을 통해서 구술자의 회상을 유도하거나 자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풀어쓰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점을 보충해서 좀 더 의미 있는 글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III. 자서전 쓰기의 주제

1_ 주제의 중요성

모든 글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하나의 주제로 묶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몇 가지의 주제가 부각되지 않는 자서전은 그저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옛날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1) 회상의 근거를 제공한다

예컨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첫사랑에서부터 이루지 못했던 가슴 아픈 사랑, 그리고 결혼에 이른 결정적인 사랑과 그 이후의 자녀와 가족에 대한 사랑에까지 구술자의 '생각의 끈'을 이어준다.

2) 자서전을 읽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자서전 쓰기의 초보자들에게, 글이 가능한 중심을 잃지 않고 전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독자로 하여금 공감하도록 한다

주제는 독자들에게도 자서전을 읽고 그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삶을 반추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의 주요주제 10가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제들입니다. 결국 자서전 쓰기는, 막연한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닌, 주제들에 대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회상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2_ 주요 주제

자서전 쓰기에 활용될 수 있는 주제는 다음의 10가지입니다. 10가지 주제에 국한하여 자서전을 쓸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각 주제들을 충실히 따라가도록 해봅니다. 이 주제들이 인생의 특정 시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일반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들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온 여성의 경우,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녀와 무관한 주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를 통해서 '자신이 왜 결혼을 안했는지', '어려서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계기로 독신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혹은 '결혼한 친구들과 과거의 갈등경험 속에서 자신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등을 생각해 보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자가 자신과는 무관한 주제라고 생각하거나, 결코 회상하고 싶지 않은 주제라고 말한다면 그 주제를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은 결혼이나 은퇴, 이민 등 외형적으로 중요하고 커다란 사건일 수도 있지만, 친구와의 우연한 대화나 무심코 집어든 책 한 권, 별 생각 없이 떠난 여행과 같은 매우 작고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전환적 사건인가 아닌가의 결정은 온전히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즉,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또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은 몇 번이나 있었는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인지 '회상' 해 보세요.

다음의 질문은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끌어내는 데, 혹은 여러분의 '구술자가 그러한 회상을 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
- ① 당신은 살아오면서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몇 번이나 만났나요?
 - ②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언제였나요?
 - ③ 첫 번째 전환점은 언제였나요? 그 다음은..... 마지막 선택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 ④ 각각의 전환점에서 당신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선택으로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녀, 친구, 책 등) 그리고 그의 조언이나 그가 당신에게 준 영향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당신은 스스로 모든 선택을 결정했나요?
 - ⑥ 후회되는 선택의 순간은 없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 ⑦ 만일 그 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나요?
 - ⑧ 뒤 돌아 보아, 지금도 만족스러운 선택은 무엇인가요?
 - ⑨ 지금, 과거의 같은 전환점에 서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나요?
-

2) 가족

가족이란 법적으로 가깝게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멀게는 숙부와 숙모, 사촌에 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범위까지를 나의가족으로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이 나의 삶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생에 있어서 가족의 의미, 가족원에 대한 느낌과 생각, 경험을 '회상'해 보세요.

- ①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②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 ③ 가족 중 당신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 ④ 반대로 가장 멀게 느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 ⑤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요? 부모님과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 ⑥ 당신이 부모님과 가장 닮은 점은 무엇인가요? 또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⑦ 형제관계는 어떤가요? 당신과 가장 잘 통하는 형제는 누구인가요?
 - ⑧ 형제들과 당신이 가장 닮은 점은 무엇인가요? 또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⑨ 가족 간에 주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 ⑩ 가족에 대한 기억 중 가장 행복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 ⑪ 어린 시절 당신 가족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그리고
현재 당신 가족의 분위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 ⑫ 가족들이 함께 경험한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 혹은 위기는 무엇인가요?
 - ⑬ 당신은 가족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사랑받는다고 혹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

3) 일과 역할

일이란 직업적인 일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역할이란 그 일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 기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업 이외에도 집안일, 부모노릇, 자녀의 역할,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역할, 공부, 봉사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일이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내가 '얻은 것'과 '바랐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
- ① 당신의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나요?
 - ② 당신의 꿈은 나이가 들면서 바뀌었나요? 아니면 늘 한결 같았나요?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나요?
 - ③ 당신의 꿈을 결정하고 이루는 데 누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나요?
 - ④ 당신은 평생 몇 개의 일 혹은 직업을 가졌나요?
 - ⑤ 그 일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일은 무엇 인가요?
 - ⑥ 당신은 언제 그 일을 하기로 결심했나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 ⑦ 당신의 삶에서 일이 주는 의미가 있나요?
경제적 보상, 자아실현, 개인적인 성취 혹은 기타 무엇인가요?
 - ⑧ 평생 동안 여러 개의 일을 가졌다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일은 있나요?
그 일이 특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⑨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이나 경험, 혹은 일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인가요?
 - ⑩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일을 선 하겠나요?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하겠나요?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 ⑪ 만일 다른 일을 선택했다면, 지금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으리라 느끼나요?
 - ⑫ 하는 일을 통해서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느껴지나요?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은 어디로부터 온 건가요? 당신 자신인가요,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가요?
 - ⑬ 주위 사람들이 당신의 일에 대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그런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다고 느끼나요?
 - ⑭ 당신이 가장 닮고 싶었던 사람이나 롤 모델이 있나요? 누구이고 무엇인가요?
 - ⑮ 당신이 일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공(의미)은 무엇인가요? 또 가장 큰 실패는?
-

4) 사랑과 증오

사랑이란 특별한 사람이나 장소 혹은 물건 등에 대한 강한 정서적인 애착(愛사랑애,着붙을착)을 의미합니다. 이성간의 사랑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사랑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한 사람과 애착을 갖는 것들, 그리고 줄곧 나를 괴롭혔던 대상에 대한 증오(미움)를 떠올려 보세요. 주의할 것은 사랑이나 증오에 대한 회상이 나를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폭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충격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
- ① 일생을 통해 가장 사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② 성장함에 따라 사랑한 대상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한결같은 대상이었나요?
 - ③ 어린 시절, 젊었을 때 그리고 중년과 노년에 각각 당신이 가장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 ④ 당신은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지나요?
 - ⑤ 성장하면서 당신을 사랑해준 사람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한결같은 사랑을 준 사람이 있나요?
 - ⑥ 어린 시절, 젊었을 때 그리고 중년과 노년에 당신을 가장 사랑해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 ⑦ 이성간에 사랑에 빠져 본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 누구였나요?
 - ⑧ 그 사랑은 얼마나 지속되었나요? 끝났다면 그 이유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 ⑨ 살아오면서 사랑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어떻게 변했나요? 그 변화에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었나요?
 - ⑩ 당신이 가장 애착을 가진 물건이 있나요? 그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⑪ 가장 좋아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나요? 어디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⑫ 그 밖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 ⑬ 그 사람이 죽었으면 할 정도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구이고?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 ⑭ 증오의 대상은 한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여러 번 바뀌었나요?
 - ⑮ 어릴 때 가장 싫어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자라면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

5) 건강

건강은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그리고 외모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건강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결정과 사랑, 인간관계, 그의 가치관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아팠으며, 언제 병에서 회복했는가, 언제 가장 건강하게 활력을 유지했는가, 그리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외모에 대해 어떤 평가를 받아 왔는가 등에 관한 다음의 질문은 자서전쓰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 ① 당신은 대체로 건강한 편이었나요 아니면 허약한 편이었나요?
 - ② 아기 때 당신의 건강은 어떠했나요? 또 이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 때는 어떠했나요?
 - ③ 당신은 자라면서 점차 건강해졌나요? 아니면 그 반대였나요?
 - ④ 운동은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었나요 아니면 그 반대였나요? 어떤 운동을 가장 좋아했나요?
 - ⑤ 당신이 늘 걱정하는 건강의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 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나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 ⑦ 현재 생활습관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쪽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 ⑧ 당신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나요?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떤 곳인가요?
 - ⑨ 당신의 외모는 성장하면서 어떻게 또 얼마나 변했나요?
 - ⑩ 외모를 가꾸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그 결과는 어떤가요?
-

6) 고난과 역경

같은 고난과 역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당시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또 그 결과도 다릅니다. 똑같은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헤어 나오지 못할 좌절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의 역사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주제를 형성합니다. 당신이 겪은 가장 어려웠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때 당신의 반응과 행동을 '회상' 해보세요.

-
- ① 당신은 일생을 통해 몇 번이나 고난을 경험했나요?
 - ② 당신의 고난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었나요? 일생을 통해 고르게 분포되었나요?
 - ③ 일생 중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 ④ 그 어려움은 외모로부터 온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 내부로부터 온 것인가요?
 - ⑤ 그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나요?
 - ⑥ 당신의 역경에 대처한 방식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나요? 후회되는 부분은 있나요? 다시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나요?
 - ⑦ 지금까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늘 같았나요? 계속 변했나요?
 - ⑧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신의 무력함인가요 아니면 외부의 비난이나 평가인가요?
 - ⑨ 당신이 고난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또
그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도움은 어떤 것인가요?
 - ⑩ 당신이 겪은 고난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긍정적인가요 그 반대인가요?
-

7) 인간관계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고 그와 관계를 맺고 또 그와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누구를 만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고, 그 만남이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
- ① 당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것을 좋아하나요?
 - ② 몇 명의 친구가 있나요? 친구가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 ③ 당신은 인생에 있어서 친구의 의미를 어떻게 느끼나요?
 - ④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더 많아졌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 ⑤ 일생을 통해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⑥ 그(녀)와의 만남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요?
 - ⑦ 그(녀)와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먼저 다가갔나요, 그 반대인가요?
 - ⑧ 그와의 만남을 통해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 변화는 긍정적인 것이었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었나요? 그(녀)로부터 배운 점은 뭔가요?
 - ⑨ 당신은 사람관계에서 무엇을 가장 주요하게 느끼나요?
 - ⑩ 당신은 주로 어떤 관계를 좋아하나요? 친구관계, 선후배관계, 사제관계 혹은 기타 무엇인가요?
 - ⑪ 당신은 배신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일이었나요?
 - ⑫ 누군가를 먼저 배신했거나, 혹은 배신했다고 오해받은 적은 있나요?
 - ⑬ 당신의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했나요? 관계의 폭과 깊이, 그리고 종류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나요?
-

8) 학문과 예술

학문과 예술은 유명한 학자나 예술가의 삶에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그에 대한 사색, 그리고 주변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추구하는 것도 학문이고 예술입니다. 음악은 우리 삶의 배경이 될 수 있고, 개인적인 철학의 강력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문학은 우리를 위로하고 가르치며 영감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예술은 삶에서 단순한 장식품에 머물 수도 있지만,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일생을 통해 몰두했던 무엇을 회상하고, 당신의 삶에 미친 영향력을 생각해 보세요.

-
- ① 일생을 통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공부하거나 꾸준히 찾아온 무엇이 있나요?
 - ② 나이가 들면서 당신의 관심은 변했나요 아니면 한결 같았나요?
 - ③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나요?
 - ④ 어린 시절,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은 책은 무엇인가요?
 - ⑤ 또 각각의 책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⑥ 당신은 글을 읽는 것과 쓰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나요? 이유가 있나요?
 - ⑦ 나이가 들수록 궁금하거나 관심을 갖는 영역이 바뀌었나요? 늘 한결 같았나요?
 - ⑧ 당신은 무엇이 아름다움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나요? 혹은 느끼나요?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나이가 들면서 변했나요? 한결같았나요?
 - ⑨ 어떤 음악을 좋아하나요? 나이가 들면서 그 종류가 바뀌었나요?
 - ⑩ 인생에서 특별한 시기, 특별한 사람 혹은 특별한 경험이 떠오르게 하는 음악이 있나요?
 - ⑪ 가장 좋아하는 예술은 무엇인가요? 음악, 그림, 조각, 연극, 영화, 무용 혹은 기타?
 - ⑫ 그 예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 ⑬ 그것을 감상하기를 즐기나요 아니면 직접 하기를 즐기나요?
 - ⑭ 당신의 삶에서 예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9) 신념과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에 대한 생각은 일생을 통해 지속되고 또 몇 번 변화됩니다. 어떤 믿음을 갖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는 그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신념이나 가치관은 나의 삶의 목표를 결정하고,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과,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회, 인간, 삶 등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을 꺼내보세요.

-
- 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돈, 명예, 사랑, 행복, 기타?
 - ②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변했나요, 한결같았나요?
 - ④ 가치관이나 신념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나 사상, 사건이 있나요?
 - ⑤ 당신의 가치는 우리 사회나 일반 사람들의 가치와 얼마나 비슷하거나 다른가요?
 - ⑥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느끼나요?
 - ⑦ 현재의 당신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한다고 느껴나요?
 - ⑧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가치와 다를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 ⑨ 당신은 세상에 대해 애정(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 ⑩ 당신은 종교가 있나요? 만약 없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 ⑪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종교를 갖게 되었나요? 혹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종교를 버리게 되었나요?
 - ⑫ 당신 종교에 대한 신앙심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느끼나요?
 - ⑬ 스스로 생각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나요?
 - ⑭ 당신의 삶의 목표는 나이가 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10) 이별과 죽음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죽음의 경험 앞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삶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그가 부모였는지, 조부모나 친척이었는지, 또는 친구나 어느 스타였는지, 애완동물이었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나의 '삶'에 혹은 나의 '죽음'에 대한 생각에 끼친 영향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노인은 자신의 등 뒤에 많은 죽은 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우리의 현재만을 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보냈던 우리 지난 인생의 부분들을 통째로 빼앗아갑니다. 처음으로 경험한 그 사람의 죽음을 떠올려 보세요. 또 나의 인생에서 슬픈 이별의 장면이 있었다면 '회상'해 보세요.

-
- ① 처음으로 경험한 이별은 누구와의 이별인가요?
 - ② 당신은 사랑하면서도 이별한 경험이 있나요? 그 이별은 어떻게 일어났나요?
 - ③ 당신은 원하지 않는 이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 ④ 처음으로 경험한 죽음은 언제, 누구의 죽음이었나요?
 - ⑤ 그 때 당신은 무엇을 느꼈나요? 그리고 그 경험이 당신의 삶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게 해주었나요?
 - ⑥ 경험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누구였나요? 그 죽음은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⑦ 죽음에 대한 느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했나요?
 - ⑧ 지금 죽음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어떤 것인가요?
 - ⑨ 어떤 유명한 사람의 죽음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누구의 죽음이었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요?
 - ⑩ 당신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기를 원하나요?
 - ⑪ 당신이 죽은 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느껴지시나요?
-

3_ 연대표 만들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먼저 철근으로 든든한 뼈대를 세우듯이, 대략의 골격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서전 쓰기에서 골격에 해당하는 것은 '인생의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1) 연대표의 이점

첫째 연대표는 전체적인 인생의 흐름과 진행을 한 눈에 확인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일생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시기 혹은 인물 등이 빠지지 않도록 해 줍니다.

둘째 연대표는 자서전 전체의 흐름을 꿰뚫어 줌으로써 자서전을 일관성 있게 써가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연대표는 효과적인 회상과 기술을 돕기 때문에 보다 풍부한 자서전을 쓰게 도와줍니다.

넷째 연대표는 특히 사회적 사건과 개인적 사건을 함께 기술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가족과 사회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조망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도록 도와줍니다.

2) 연대표 작성법

① 기본표

사회적 사건	연도	연령	개인 사건	가족관계(사건)
	1965년	1	출생	
	1966년	2	친구 진이와 만남	
	1967년	3		
	1968년	4		남동생 출생
	1969년	5		
	1970년	6	수두 앓음	
	1971년	7	초등학교 입학	
유신선포	1972년	8		
	1973년	9		
	1974년	10	친구 진이와 만남	
	1975년	11		
	1976년	12		
	1977년	13	중학교 입학	
	1978년	14		
박정희 대통령 사망	1979년	15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16	고등학교 입학	아버지 사망
전두환 대통령 취임	1981년	17		
	1982년	18		
	1983년	19		
	1984년	20	대학 입시 실패	
	1985년	21	대학 입학	큰 언니 결혼
	1986년	22		
	1987년	23		
노태우 대통령 취임	1988년	24	교사 임용고시 합격	
	1989년	25	교사로 취업	
	1990년	26	대학원 입학	
	1991년	27		작은 언니 결혼
	1992년	28	대학원 졸업	외할머니 사망
김영삼 대통령 취임	1993년	29	결혼, 새학교로 전근	
	1994년	30	첫 딸 출산, 휴직	
	1995년	31		동생 결혼
	1996년	32	둘째 아들 출산, 휴직	시누이 결혼
	1997년	33		남편 전직
김대중 대통령 취임	1998년	34		딸, 아들 수두
	1999년	35		
	2000년	36	전근	시할머니 사망
	2001년	37		딸 초등학교 입학
	2002년	38		아들 유치원 입학
노무현 대통령 취임	2003년	39		시아버지 수술
	2004년	40		
	2005년	41		
	2006년	42		
	2007년	43		
이명박 대통령 취임	2008년	44		
	2009년	45		
	2010년	46		
	2011년	47		

② 시간 기록하기

출생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1년 혹은 3년에서 5년 단위로 분배합니다. 이 때 기록할 수 있는 공간만 허락된다면, 1년 단위로 세분화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회상을 구체화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③ 개인사건 기록하기

가족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는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조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등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특히 가족관계는 결혼을 중심으로 가족의 범위가 변화된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④ 가족사건(관계)

쓸 공간과 기억의 한계로 인해 모든 사건을 낱알이 기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생의 사건들을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삶의 전환점이 생겼으면, 칸을 넓혀서 여러 개를 기록해도 좋습니다.

⑤ 사회적 주요 사건 기록하기

사회적 사건은 자신의 인생과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는 결코 한 사람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사회적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기억이 더욱 생생하게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사건도 연도에 맞추어 '세계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했던 사건들 특히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IV. 자서전 쓰기의 자료

1_ 회상

회상의 구체적인 방법들

- 역사적 사건에 관한 회상
- 신문이나 잡지를 이용한 회상
- 미술을 이용한 회상
- 음악을 통한 회상
- 영화를 통한 회상
- 문학작품을 이용한 회상
- 골동품을 이용한 회상

2_ 일기

3_ 사진

4_ 메모와 기록들

무심코 메모지에 적어 놓은 글귀, 성적표, 시험지, 과제물, 과제물에 적힌 선생님의 평가나 메모, 행사 일정을 적어 놓은 노트, 수첩, 휴대용 전화번호부 등. 이와 함께 연도와 일자가 적어져 있으면 다른 자료들과 연결시켜 추억을 살려 낼 수 있습니다.

5_ 편지와 카드

생일이나 졸업 때 주고받은 편지, 짝사랑의 편지, 연애시절 배우자와 주고받은 편지, 부모님과 주고받은 편지, 특히 편지나 카드는 그 내용 뿐 아니라 편지의 색상이나 무늬, 그림 그리고 카드의 그림도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편지를 접는 방법이나 펜의 색깔, 이름을 쓰는 방법이나 별명에 대해서도 알려 줍니다.

특히 편지는 일기와는 달리, 대부분 나의 삶에서 '특별한 날'에 대한 기억을 이끌어 줍니다. 생일, 졸업, 입학, 합격, 낙방, 결혼, 성년식, 첫 사랑, 이별 등. 따라서 편지나 카드는 특히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6_ 주변의 증언

한 사람의 기억은 완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 본 기억이라는 점에서 부분적일 수 있습니다. 또 내 기억이 왜곡되었거나 잘못된 사실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망각된 채 남은 부분만을 기억 속에 가지고 있거나 사람의 이름이나 장소, 시간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 예컨대 부모님, 형제, 친구, 선생님, 직장 동료들, 이웃, 직장 상사 등의 기억에 도움을 받아 나의 과거를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를 위해 녹음기나 사진기를 휴대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7_ 기타 자료들

그 외,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음식, 다시 유행하는 복고풍의 의상, 특별한 향기, 전자메일(E-mail), 옛 집 등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V. 글쓰기를 위한 준비

1 _어떻게 써야 할까?

자서전을 쓸 때 특히 노인들의 경우 장기간의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좋을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 생각나는 대로 써봅니다

잘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편안한 기분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자신이 아는 만큼만 글로 표현해 봅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또 자서전의 구조는 언제든지 수정하고 편집하여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완벽하게 글을 쓸려고 노력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대기 적인 설명이 필요 한 경우 낡은 사진이나 편지, 기념품 등을 활용하여 기억을 활성화시킨 후 필요한 부분에 삽입해 써 넣어 주면 됩니다.

2) 자연스럽게 씁니다

너무 연대기적인 틀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자서전은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자서전은 그러한 사건이 그때 그 사람의 삶에 주는 의미나 그때 그 사람이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의 의미를 재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감정'이나 '내면 세계'가 함께 이야기되도록 신경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 개성이 느껴지게 씁니다

자서전 쓰기는 수필이나 문학 작품처럼 매끈하게 쓰는 데에 지나치게 신경을 집중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자서전은 그 사람다운 말투로, 자기답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유산을 만들고 전하기 위하여 자서전을 쓰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것을 물려받게 될 자식들과 손자들은 개인적이지 않은 역사적 설명보다는 그 사람의 체취가 그대로 느껴지는 글로부터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낙서를 하는 기분으로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자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조목조목 써 내려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일단 글이 완성되면, 다시 읽어보고 빠진 것을 끼워 넣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면서 불충분한 표현들을 보완하는 식으로 정리해 갑니다.

4) 글쓰기를 즐깁니다

어떤 의무에 의해서 억지로 글을 쓴다면, 결코 글 만들기에 능숙해질 수 없습니다. 글쓰기가 어렵다는 선입관을 버리고, 평소에 글을 많이 읽고, 질문과 관심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하고 글쓰기를 시도해 봅니다.

다른 사람의 자서전(글)을 부지런히 읽어 보고, 나도 몇 번 써 보면 언젠가 나도 그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5) 사고를 해방시켜 창조적으로 씁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고정된 생각과 방법을 갖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아지면서 신중성이 증가하여 발산적(發散적, 散逸을산, 的과녀적)으로 사고하고 창조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줄어들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인습을 좇아 습관적인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경직되면 창조적이고 위트 있는 글이 나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생각과 마음을 좀 더 유연하게 하고, 다른 각도나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글을 만들어 갈 때 '사실적인 묘사'와 함께 '은유(隱喻, 은, 喩, 깨우칠유)'를 통한 여유 있고 독창적인 표현의 글이 만들어 집니다.

6) 문장은 지나치게 꾸미지 말고, 쉽고도 구체적으로 씁니다

자서전 쓰기의 문장은 멋을 부리거나 수식어를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의 길이가 짧고, 요점을 추려 간략하게 써야합니다. 명쾌하게 전달되는 문장이 좋습니다.

그러나 옛 기억 속의 색깔이나 냄새 등의 기술(記 기록할기, 述 지을술)은 되도록 상세하게 재생하여 현장감이 느껴지는 표현이 되게해야 합니다.

7) 개방적으로 씁니다

자서전은 글 쓰는 사람의 업적이나 훌륭한 점, 잘한 일, 의미 있는 일 등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서전에서는 성공과 실패, 장점과 단점, 사랑의 감정과 악의 등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꾸밈없이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2_ 효과적인 글쓰기 순서

자서전을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쓰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할지 더 막연해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면 도움이 됩니다. 우선 글의 중심적인 내용인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를 살리기 위한 '소재'를 선택하여, 대략적인 글쓰기 순서를 정합니다.

1) 주제 설정

주제(Theme, Subject, Motif)는 글의 중심적인 내용이고, 글 쓰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입니다. 노인과 대화의 대화를 통해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적절하게 소재들을 붙여줍니다.

자서전은 삶의 각 사건별로 '주제가 선명한' 자서전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안내한 10개의 주제들은 각자 삶에 대한 기억과 회상을 촉진하는 좋은 주제들입니다.

2) 소재의 선택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된 모든 재료를 소재라고 합니다. 소재는 글에 있어서 대표적인 재료로서 주제에 맞는 이야기꺼리나 에피소드를 말하며, 풍부하고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주제에 맞고, 주제를 뒷받침하는 소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3) 구상

주제가 결정되고, 이에 따른 소재가 선택되면, 본격적인 글쓰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상(構擘을구,想 생각상)(outline)을 해야 합니다.

구상은 글의 전체 윤곽을 잡는 일입니다. 선택된 소재를 어떻게 배열하고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구상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와 같은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글쓰기의 선행 과정입니다. '구상'에서 '초고'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노인다운 관점(소재 등)을 마음속에 떠올린다.

둘째 중요한 소재들을 메모한다.

셋째 메모된 것들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정한다.

넷째 핵심적인 소재들의 기록할 순서를 정하고, 그 소재와 글 전체의 유기적이고 통일성 있는 관계를 표시한다.

다섯째 개요, 즉 대강의 요점을 적는다.

여섯째 개요에 따라 상세한 부분으로 단락을 구분하여 초고를 완성한다.

4) 집필

구상에 따라 글을 쓰는 것이 집필입니다. 머리 속에 구상한 것을 글로 표현할 때, 한 번에 완성해야겠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여러 번의 연습과 정리의 과정으로 글을 다듬어 갑니다.

또 새로운 사건이 삶에 더해지거나 떠오를 때 자서전은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수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심과 긴 노력 가운데, 참 자기다운 글의 자서전이 완성됩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

5) 퇴고

글이 대충 완성 된 뒤에는 퇴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글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글 쓰는 이의 기분이나 심신의 상태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읽고 검토함으로써 보충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완전한 글로 만들어 갑니다.

VI. 자서전 쓰기의 후속 작업

자서전 쓰기의 전 과정이 끝나고 나면 친척과 지인(知人)들에게 자서전을 선물하는 것으로 자서전 쓰기의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_ 두 번째 자서전 쓰기

자서전 쓰기의 경험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과 관련된 아이디어, 기억, 자료들을 수집하며, 인생의 주요 이슈나 주제들에 대한 '감수성(感受性)'을 증가시키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사람의 동일한 삶일지라도 그 삶의 이야기를 더욱 확장시키고, 더 예민한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며, 삶을 보다 세련화 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새롭게 자서전 쓰기를 반복해 보는 것도 가치있는 일입니다.

2_ 자서전의 출판

처음부터 출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자서전 쓰기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두 번째 자서전을 쓰면서 서서히 자서전을 출판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 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자서전의 출판을 시도해 보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큰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자서전 출판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1) 상업적 출판
- 2) 소규모 출판사를 통한 자비량 출판
- 3) 맞춤형 출판(POD: Printed On Demand)
- 4) 개인용 프린터를 이용한 자서전 인쇄 제본
- 5) 인터넷을 통한 자서전 공유

3_ 다른 글쓰기 경험 : 수필과 시 쓰기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글쓰기를 위하여 자전적인 시나 수필을 써 보는 공부도 있습니다. 이 자전적 수필을 자신이 속한 모임의 소식지나 동창회보, 지역신문, 직장의 사보 등에 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글 쓰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공감하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도움주신 분

프로그램 개발

활동	성명	소속 및 경력	비고
프로그램 총괄	김경미	강서청소년회관 부장	
프로그램 진행 및 청소년 지도	안은미	강서청소년회관 청소년지도사	
노인의 이해 강의	장은주	서울특별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과장	
자서전 쓰는 지도	류유창	연세대학교 대학원 상담 및 종교 철학 전공 강서청소년회관 Global School 논술 지도	
인터뷰기법 지도	김문호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 졸 前 이투데이(에너지일보) 신문기자	

참가 어르신

성명	성별	연세	경력	비고
임채승	남	75세	前 용문고 교사 現 용문중학교 '배움터 지킴이' 활동	
신상은	남	77세	前 흥사단 심사 회장 現 (주)유성 대표이사	
나홍주	남	77세	국제법 박사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소장	
한명희	남	72세	도산청소년재단 이사장 국제 공항 주유소 대표	
박남식	남	76세	前 서울시의원 現 운촌사상연구 회장	
설광희	남	73세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공감창조 기자단 팀장(사진, 영상촬영)	
지용희	여	76세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공감창조 기자단	

※ 어르신들의 경우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기꺼이 청소년들의 인터뷰 대상자가 되어주시고 동시에 청소년들의 반응을 이끌고 지도하며 프로그램 개발에 자문하여 주셨기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기반지도 매뉴얼 II
핵심역량 - 사회성 프로그램

인 쇄 2010년 12월 27일

발 행 2010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원장 이명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계문사(02-725-5216)

ISBN 978-89-7816-931-8 (93330)

978-89-7816-927-1 (93330) (세트)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제·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